

# 우리문화



특집 | 문화프로그램의 키워드 '체험'  
문화기행 I | 헤초의 실크로드를 찾아  
문화기행 II | 이제는 눈물을 믿는가, 리치아여!



2005 - 5.6  
VOL. 176  
전국문화원연합회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 아이들, 강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  
동산을 오르는 아이들... 파릇파릇한 아이들은 여름을 닮았습니다.

## 동작문화원, Hi Seoul 페스티벌 2005 퍼레이드 최우수상



동작문화원이 지난 6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Hi Seoul 페스티벌 2005' 퍼레이드 시상식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 서울시로부터 상패 및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Hi Seoul 페스티벌' 퍼레이드는 지난 5월 5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화문-태평로-남대문을 왕복하는 2Km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동작

문화학교 제24기 수강생 3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작구의 상징성·역사성을 담은 퍼레이드를 선보였다.

특히, 가장행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켜 도포, 갓, 망건을 쓴 옛 선비 재연 행사를 펼쳤으며 풍물놀이 한마당, 댄스스포츠, 차밍디스코, 현대무용 등을 공연했다.

또한, 배 모양의 트럭과, 구를 상징하는 장식 및 큰북을 설치한 대형트레일러를 이용한 차량행렬에서는 사육신 7인, 연화무 23인이 출연한 가운데 사육신 승천장면을 재연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동작문화원은 지난해 전국문화원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 “문화의 집에서 즐거운 문화체험”

문화관광부는 복권기금 10억원을 기반으로 전국 152개 '문화의 집'에 300여개의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극 놀이, 뮤지컬 만들기, 타일벽화 그리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은 단편적인 강습 위주를 벗어나 실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의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 '문화의 집'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외

부 프로그램 공모는 6월 3일까지 진행되어 전국의 문화예술 단체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수준 높은 외부 전문 프로그램들이 제공됨에 따라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의 확대는 물론 자체적인 기획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올해로 조성사업 10주년을 맞이하는 '문화의 집'에 대해 (사)한국문화의집협회와 공동으로 현황조사와 기능강화방안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전국문화원 새로운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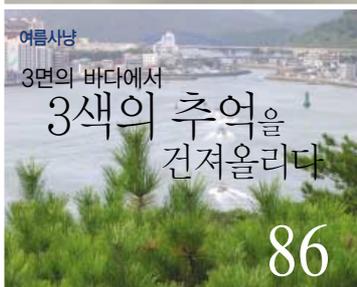
- ▲서울 용산문화원장 박영희
- ▲서울 성북문화원장 천신일
- ▲서울 양천문화원장 이경동
- ▲서울 구로문화원장 장영신
- ▲인천 계양문화원장 홍창의
- ▲부산 강서문화원장 박홍목
- ▲대전 대덕문화원장 류해상
- ▲강원 속초문화원장 노광복
- ▲충북 청원문화원장 오경세
- ▲충북 영동문화원장 정원용
- ▲충남 천안문화원장 권연옥
- ▲충남 부여문화원장 윤준웅
- ▲충남 홍성문화원장 전용택
- ▲충남 예산문화원장 이진자
- ▲충남 아우내문화원장 우용제
- ▲전북 전주문화원장 서 승
- ▲전북 구례문화원장 김정일
- ▲전남 목포문화원장 김석철
- ▲전남 광양문화원장 박노희
- ▲경남 의령문화원장 강홍석
- ▲경남 창녕문화원장 이이두
- ▲경남 함양문화원장 김성진

(관련기사 76면)

## 소외계층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연중 실시

전국의 소외계층에게 질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소외계층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이달말부터 11월까지 연중 실시된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복권기금 34억 원을 지원받아 전국 200여개 지방문화원에서 농·어·산촌 주민과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 등 6만여 명에게 다양한 문화·역사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 집

문화프로그램의 키워드

‘체험’

16

문화마당

옹헤야 '아리랑' 연주하는  
‘파란눈’의 앙상블

4

문화기행 I

헤초의  
실크로드를 찾아

34

문화기행 II

이제는 눈물을 믿는가,  
러시아여!

40

여름사냥

3면의 바다에서  
3색의 추억을  
건져올리다

86

# Contents

May · June 2005 \_ Vol 176

4	문화마당	‘옹헤야’ ‘아리랑’ 연주하는 ‘파란눈’의 앙상블
10	생활문화	결혼은 있고 혼례는 없다
16	특집	문화프로그램의 키워드 ‘체험’
28	문화논단	일본인도 혼동하는 ‘다케시마’라는 2개의 지명
33	시한편	나를 슬프게 하는 것
34	문화기행 I	헤초의 실크로드를 찾아
40	문화기행 II	이제는 눈물을 믿는가, 러시아여!
58	해외문화	멀리 있는 러시아, 가까이 있는 러시아 문화
64	Tits마루	문화와 도서관
66	지역따라 노래따라	석양빛 머금은 진해 앞바다 ~
70	문화정보	문화 관광 분야 개인미디어 · 커뮤니티
74	문화뉴스	지역 특성 맞춘 체험관광지 개발
81	사랑방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수집 10년 ‘특별전’
86	여름사냥	7~8월 추천! 여름휴가지
92	책꽂이	축제입문서 How to Festival 외
96	성과 로맨스	‘나의 아내를 차마 잊을 수 없습니다’(下)



# SaltaCello

독일 밴드 살타첼로

# ‘옹헤야’ ‘아리랑’ 연주하는 ‘파란눈’의 앙상블

지난 3월초 KBS 다큐멘터리인 ‘수요기획’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가슴 뭉클한 전율과 진한 감동을 느꼈다. <살타첼로의 한국연가>란 타이틀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독일 출신의 5인조 재즈앙상블인 살타첼로 멤버들의 지극한 한국사랑을 다뤄 화제가 됐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살타첼로’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어에서 한동안 1위를 차지하며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살타첼로가 국내 시청자들에게 전한 진한 감동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독일인인 살타첼로 멤버들이 한국인들도 별로 감흥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크게 느끼지 않는 한국민요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독일에 파견된 한국의 홍보대사 격이라고나 할까?

## 한류 붐을 이끌어야 할 사람은 지한파

사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한파 문화인들은 저마다의 장점과 특성을 갖고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프랑스인 이다도시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방송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 프랑스 현지 TV 방송국에서 그녀를 인터뷰 해가 프랑스 전역에 소개하는 등 지한파의 활약은 한국에 대한 자연스런 소개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이 되고 있다.

지한파는 최근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각국에 한국 홍보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알리는 면에서도 의미있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한류 지역에서 한국어 교사 파견, 체계적 교재 마련 등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원 설립, 교환교수제 등으로 지한파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한파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일부 지한파들은 귀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한국에 동화되기도 한다. 귀화하는 외국인 수는 90년 37명에서 2000년 278명, 2001년 6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문화인도 꽤 된다.

지난 86년 귀화한 이참(과거명 이한우)씨는 ‘독일 이씨’의 시조다. 79년 기독교 관련 행사를 위해 방한했다가 눌러 앉아 대학교수, 방송인, 회사경영자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방송과 광고 등에 자주 등장하는 미국계 하일(미국명 로봇 할리)씨는 지난 97년 부산의 지명을 딴 ‘영도 하씨’로 귀화했다. 현재 국제변호사 활동과 광주·전북 등의 외국인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01

살타첼로(SaltaCello)는 ‘도약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살타레-Saltare’와 악기이름인 ‘첼로-Violoncello’를 조합한 말.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깊고 포용력있는 악기인 첼로를 그룹과 작곡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멤버들 모습이다.

2000년 귀화한 러시아 대표 선수 출신 골키퍼 신의손 씨는 별명을 한자로 옮긴 경우다. 러시아 이름은 사리체프지만, 워낙 공을 잘 막아 ‘신의 손’을 그대로 이름으로 만들었다. 프로축구팀 안양 LG 소속이라는 점에 착안, LG의 연습장이 있는 ‘구리’를 본관으로 삼았다.

최근 독일에서 활동하며 한국민요를 유럽인들에게 소개하는 독일 5인조 살타첼로 역시 대표적인 지한파 밴드이다. 그들은 한국이 아닌 독일에서 한국문화와 한국민요를 알리고 있다.

〈강원도 아리랑〉 연주하는 독일 명문 음대 졸업생들

살타첼로는 이미 한국 민요를 여러 장의 CD 발매와 공연을 통해서 유럽인들에게 알려냈다. 〈나그네 설움〉 〈진도 아리랑〉 〈옹헤야〉 〈강원도 아리랑〉 〈강강수월래〉 등 수 많은 우리 민요를 살타첼로만의 색깔로 변형시켜 독특한 음악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01 살타첼로(SaltaCello)는 ‘도약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살타레-Saltare’와 악기이름인 ‘첼로-Violoncello’를 조합한 말로,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깊고 포용력있는 악기인 첼로를 그룹과 작곡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멤버 대부분이 독일의 명문 슈투트가르트 음대출신인 살타첼로는 각자 클래식을 전공한 우수한 솔로리스트이며 세션들이다.

이렇듯 독일의 정통 5인조 재즈양상블인 그들은 〈옹헤야〉 〈나그네 설움〉 〈강원도 아리랑〉 등 한국음악을 재즈로 새롭게 해석해 유럽에서 한국 민요를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타첼로는 국내에서 음반사 굿인테리어네셔널과 손잡고 피터 신들러의 자작곡을 중심으로 음반을 발매했다. 1996년 'On the way'가 발매됐고, 이어 1998년 포스코의 광고음악으로 쓰이면서 인기를 얻었던 'Lullaby'가 수록된 "Second Flush 두 번째 우려낸 녹차향", 1999년에는 "Live in Seoul" 2000년 "Salted", 2003년 "Come Together"가 뒤따랐다.

1999년 대만과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콘서트 이후 2000년 한국투어, 2002년 1월에는 프랑스 칸느 미템에서 가야금 앙상블 '사계'와 더불어 협연했다. 2002년 10월에는 프랑스 국제음악대회인 'TIM'에서 베스트 크로스오버 앙상블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2002년 11월에는 제4회 상해 아츠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열광적인 중국 관객 앞에서 3차례의 콘서트를 가졌다.

### 〈강원도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공연을 갖고 있는 살타첼로이니 만큼 한국의 홍보대사로 불리기에 충분하지는 않을까?

살타첼로가 한국과의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굿인테리어네셔널의 대표가 유럽에서 당시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는 음악적인 잠재력이 뛰어났던 살타첼로의 리더 피터에게 한국에서의 음반 발매와 활동을 제안했고 피터가 이를 수락하면서 그들과 한국과의 인연이 맺어진 것이다.

사실 한국 민요와 재즈와는 그리 쉽게 접목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살타첼로 멤버들은 한국 민요의 풍부한 흔들거림과 즉흥성이 재즈와 상당 부분 닮았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를 살타첼로만의 색깔로 변형시켜 새로운 음악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02

故 손기정 선생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앨범인 <42.195 Great Son> 커버.



## “한국 전통음악은 독특한 멜로디가 있다”

오는 6월 19일 내한공연을 앞두고 있는 지한파인 살타첼로의 리더 피터 신들러와 이메일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다.

Q : 한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을 텐데 왜 한국음악을 택한 것인가.  
 A : 한국 전통음악은 독특한 멜로디, 도전적인 리듬, 그리고 유럽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멜로디를 갖고 있다. 이것을 변형시켜 살타첼로만의 음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내겐 큰 행복이다. 특히 우리가 <강강술래>를 연주하면 독일 청중들은 한국곡이 들어있는 CD를 사고 싶어한다.

Q : <옹헤야> <아리랑> 등 한국 전통음악은 어떻게 배웠다.  
 A :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한국 친구들이 많다. 그들 중 한명이 가르켜 주었다. 또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한국인의 언어와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한국악기인 해금과 가야금을 들으며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악기들의 스케일과 소리에 경탄했다. 좋은 음악이니 그냥 그대로 흡수 했을 뿐이다. <옹헤야>는 한국투어중 듣게 됐는데 곡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다.

Q : 한국의 뮤지션 중 인상깊은 사람을 꼽는다면.  
 A : 한국에서 만난 뮤지션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특히 가수 김영임, 가야금 그룹 '사계', 해금 강은일을 기억하고 싶다.

### 김치와 불고기 등 한국음식도 매우 좋아해

살타첼로의 음악세계의 한국 민요와의 접목은 음반 <정>의 발매에서 크게 무르익었음이 발견된다. 서양인 신들러 형제(페터와 그의 동생 볼프강 신들러)와 한국의 해금주자 강은일 등이 음반 제작에 참여한 <정>은 진정한 퓨전이라는 용어가 어울릴만한 시·공간적 크로스오버라 평가받았다.

사실 살타첼로 멤버들은 한국 음악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문화에도 깊이 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음식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좋은 먹거리이다.

살타첼로의 리더 피터 신들러는 김치와 불고기를 매우 좋아한다. 또 베이스를 담당하는 미니는 김치 속에서 목욕할 정도(?)라는 것이 주변의 얘기. 그들은 몇 회에 걸친 국내 공연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짧지만 깊은 체험을 했다. 또 해인사도 방문해 우리문화의 큰 부분인 불교에 대해서도 느끼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했다. 피터의 경우 자신이 지도하는 어린이 합창단에게 한국어 노래와 인사를 지도하는 등 그들의 한국 사랑은 매우 깊은 편이다.

### 오는 6월 19일 세종문화회관 공연 열려

살타첼로의 한국사랑은 최근 발매된 <42.195 Great Son> 음반 발매에서도 확인된다. **故 손기정 선생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앨범인 <42.195 Great Son>**은 살타첼로의 리더이며 마라토너이기도 한 피터가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Q : 앞으로도 한국음악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A : 나는 더 이상 “이것이 한국곡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음악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굳이 한국음악을 계속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우문일 뿐이라고 본다. 음악가인 만큼 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이다.

Q : 과거 독일과 같은 분단국가라는 점 때문에 한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번 **故 손기정 추모앨범을 제작하게 된 것인가.**

A : 분단국가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다. 통일이 됐지만 독일은 아직도 깊이 패인 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두개의 한국이 통합되기를 갈망한다. 이번 음반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지만 모국을 위해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환희를 보여 줄 수 없다는 손기정 선수의 경우가 너무도 가슴아팠기에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만들게 됐다.



03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올라야 했던 **故 손기정** 선생.



하고 애국가가 아닌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진 것에 대한 울분에 깊은 공감을 느꼈기에 ‘손기정의 음악’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피터는 이 음반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잊지 않았지만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올라야 했던 <sup>03</sup>故 손기정 선생의 울분을 고인의 육성녹음과 함께 다양한 한국 민요를** 엮어서 그를 추모하는 음악을 내놓았다.

말년에 왼쪽 다리의 마비증세(동맥경화증)로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만 있는데 TV를 켜도 좋아하는 국악은 안 나온다고 푸념했다는 손기정 옹이 그 음반을 들을 수 있다면 크게 기뻐할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살타첼로는 오는 6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팬들을 찾는다. 손기정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대한공연에서 그들은 <42.195 Great Son>에 수록된 손기정을 위한 곡들과 우리 민요들의 참 맛을 들려줄 것이다.

**한국 민요의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 한국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독일의 5인조 재즈 앙상블인 살타첼로가 큰 다리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

방송, 스포츠계, 예술분야 등 전 분야에서 지한파들의 활약이 활발하다. 이제 지한파들이 더욱 한국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 문화 리더들은 노력해야 한다.

글 \_ 김준호 기자

# 결혼은 있고 혼례는 없다

이혼율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혼(非婚)족'들이 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삶의 한 형태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꿈꾸고 또 실제로 결혼을 한다. 결혼은 축제이자 인생에서 맞을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다. 이 시대의 결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행복한 사랑의 결실인가, 성(性)과 경제가 만나는 사회적 계약인가. 누군가에게는 지상 최대의 행복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시작일 수 있는 결혼. 결혼이 갖고 있는 이중성은 결혼에 대한 온갖 격언들이 동서양에 넘쳐나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결혼이 무덤이라면, 사랑하는 이와 함께 기꺼이 무덤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달콤한 신혼부부를 앞에, 나와 다른 나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기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관혼상제'의 옛 문화들이 우리 생활에서 거의 사라진 지금, 최대의 행사이자 최고의 축제인 결혼, 그러나 경쟁하듯 치러지는 화려한 이벤트와 과한 혼수부담 사이에서 신혼의 꿈은 멍들기 일쑤다. 좋은 결혼과 행복한 결혼,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문화까지의 길은 정말 멀고도 힘든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 전통문화가 낡고 고루한 것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치러지는 전통혼례를 보다 보면 옛것이 지닌 의미란 것은 결코 낡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결혼, 문화와 가치관의 총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장가를 들어 상투를 틀어야 어른대접을 해주었던 우리 전통은, 결혼을 통해 그만큼 인간다워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강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스스로가 얼마나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났는지, 나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여 함께 살 준비가 되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전통문화’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부반응을 보인다. 전통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낡은 것, 고루한 것,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 전통문화가 낡고 고루한 것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치러지는 전통혼례를 보다 보면 옛것이 지닌 의미란 것은 결코 낡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실생활에서 양복이 한복을 밀어냈듯 관혼상제의 문화 또한 서양식이 스며든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궁전 같은 예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우리식’의 결혼 예식은 아니

다. 걸모습과 격식은 빌려올 수 있어도 내용까지 갖다 쓸 수는 없다. 한 나라의 결혼 제도는 모두 독특한 생활문화의 반영이다. 결혼이 곧 종교적인 의식의 연장인 나라도 있고, 오랜 생활 풍습을 해치지 않고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나라들도 있다. 예식장을 장식한 꽃 한 송이,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음식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빨간 용단 위를 걸어오는 신부, 하얀 면사포와 웨딩드레스가 서양식 기독교적 사고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새삼스레 온 국민이 초례청 앞에 연지근지 찍어 바르고 전통혼례의 풍습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례청 앞에 선 두 남녀의 만남이, 짐승 짝짓기 하듯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성숙한 인간과 두 이질적인 집안의 배려 속에 피어난 또 하나의 문화라는 것임을 되새겨보자는 것이다.





### 대한민국 예식장은 결혼 공장?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리서치 회사인 '한국갤럽'이 결혼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자못 흥미롭다. 전국 만 20살 이상 성인 남녀 1533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했는데, 친척 아닌 아는 사람의 결혼식 때 내는 축의금이 평균 4만2천 원으로 나왔다.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를 축의금으로 낸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는데, 2001년 이 금액으로 축의금을 낸다고 답한 사람이 26%였던 데 견줘 갑절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이른바 결혼적령기에 이른 성인남녀의 경우, 그리고 봄, 가을 같은 결혼 성수기에는 한 달에 한 건 이상 결혼식이 치러진다고 할 때, 5만원 가까이 되는 축의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조사를 맡은 한국갤럽 측은 비싸진 결혼축의금에 대해 최근 예식의 고급화 경향과 함께 소득과 물가가 오르면서 축의금 액수도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씁쓸하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결혼식장에 어떤 느낌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다. 설문 응답자 1533명 가운데 55.7%의 응답자가 당연히 '결혼을 축하하러' 결혼식장에 간다고 한 반면,

26.7%라는 적지 않은 응답자가 '돈을 내러'라고 답했다. 축하도 하고 돈도 내러 가는 경우가 반반이라고 대답한 이들도 17.7%에 이르렀다. 축하보다 돈을 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결혼식. 성인 남녀에게 결혼식은 이제 드물게 찾아오는 축하 행사가 아니라 의례적인 절차이고 의리상 건너뛸 수 없는 행사다. 주말이틀 동안 서너 건의 '도장 찍기'를 해야 한다. 두 탕 세 탕 뛰다 보면 누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한 현실. 결혼의 의미와 행복의 의미는 따져볼 여유도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 결혼문화의 씁쓸한 현주소다.

사정이 이러니 결혼식 규모를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하객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집안의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하는 야릇한 분위기 탓에 돈을 주고 하객을 사는, 웃지 못할 업종이 성행하고 있다. 결혼식에 돈을 받고 사람을 '빌려주는'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에만 30개 이상의 하객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대리 친구'의 정가는 대체로 5만 원선이다.



### ‘결혼=목돈’이라는 씩씩한 공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전혼례사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은 평균 13개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결혼 날짜를 잡고, 양가 상견례를 하고, 혼수와 예물을 고르고, 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마칠 때까지 13개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절차를 따지다 보면 사람은 뒷전이고, 불필요한 절차 논쟁으로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아직 요원한 듯하다. 자식을 여럿 둔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인 자식들 결혼문제다. 그것은 자식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가보다는,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드는 비용 때문이다. 물론, 당사자들에게도 결혼자금은 심각한 고민거리. ‘한국결혼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예단비용의 경우 2000년에는 평균 572만원을 썼는데 2003년에는 123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예물비용도 2000년 평균 500만원이던 것이 2003년엔 922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옛날에는 결혼이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외로울 것이 걱정돼서’ 라는 식의, 다소 감상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안정이다. 배우자를 고르는 데 첫째 조건을 능력이나 재산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젊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고, 그것이 속물스러움이나 영악함으로 비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솔직한 미덕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이다.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 문구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어린아이에게도 부자 되는 법을 일찍 배우도록 알게 모르게 강요하는 시대. 어찌면 2005년 대한민국의 결혼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경제스러운’ 형식의 문화일 것이다. 따라서 결혼하는 모든 절차마다 목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 신혼부부에게

옛날에는 결혼이 ‘평생 같이 있고 싶어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외로울 것이 걱정돼서’ 라는 식의, 다소 감상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의 결혼에서는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신부수업이나 혼수가 아니라, 허식을 없애고 생활 규모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법이 아닐까.

### 나와 남을 함께 배려하는 결혼문화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생의 목표를 ‘즐겁게 사는 것’에 두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하나의 획기적인 이벤트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집을 고르고 혼수를 장만하는 절차보다 결혼식 당일을 어떻게 눈에 띄게 치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이벤트를 중시하는 이들 덕에 결혼 이벤트 업체들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으며, 저마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벤트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 획일적이고 뻔한 이벤트에 그치기도 한다. 일례로 한 웨딩업체에서 ‘주례 없는 결혼식’ 이벤트를 내놓자마자 여기저기서 주례 없는 결혼식이 일상적인 이벤트가 되었다.

수중 결혼식이나,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결혼 이벤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다. 새로운 이벤트들은 금세 낡아버리기 때문이다. 이젠 이벤트의 외양보다 이벤트 내용에 치중할 때

결혼에 대한 다른 흐름도 감지되고 있어 반갑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양가 어른들의 주도로 예물, 예단, 함들이 등의 형식을 생략하고 절약한 비용으로 공동 명의의 집을 얻는 일이 많다고 한다. 또 사회의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웨딩 1%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축의금의 1%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쓸 것을 권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식 결혼 축의금 일부와 주례가 사양하고 간 사례금을 재단 측에 전달해 온 사례도 있다.

다. 앞서 얘기했듯, 놓치고 있던 결혼의 의미와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볼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기발하고 독특한 이벤트가 없다고 투덜거리기 이전에 우리 것에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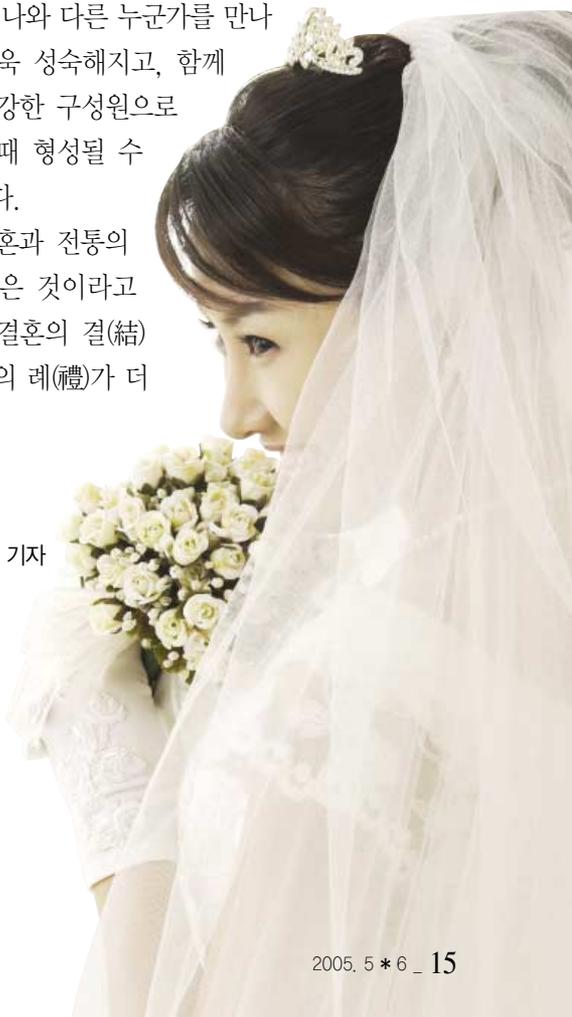
결혼에 대한 다른 흐름도 감지되고 있어 반갑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양가 어른들의 주도로 예물, 예단, 함들이 등의 형식을 생략하고 절약한 비용으로 공동 명의의 집을 얻는 일이 많다고 한다. 또 사회의 기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웨딩 1%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축의금의 1%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쓸 것을 권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식 결혼 축의금 일부와 주례가 사양하고 간 사례금을 재단 측에 전달해 온 사례도 있다.

가정문화 시민단체인 ‘하이패밀리’의 조사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 1월 서울에 사는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결혼식에서 없애야 할 순서는 폐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라져야 할 결혼식 절차로 ‘폐백’이라는 응답이 40.8%(204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 거스르는 신부 가족의 소외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결혼에 대한 관념들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결혼 문화는, 이기적인 두 주체의 결합이 아니라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 서로가 더욱 성숙해지고, 함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북돋워갈 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결혼과 전통의 혼례가 같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결혼의 결(結)보다 혼례의례(禮)가 더 중요하다.

글 \_ 전미영 기자



특 집

문화프로그램의 키워드

# ‘체험’

- 문화체험프로그램 어떻게 있나?
- 전국 네트워크 방안 모색해야
- ‘문화 종산층’이 두터워야 선진국이다
- 문화체험 장소 이동중 ‘버스 사랑방’ 운영

# 문화체험프로그램 어떤 게 있나?

## 전국문화원연합회

통합복권기금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전국 지방문화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 지회가 실시한 2004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세 가지 단계별 사업으로, 빠르게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어 늦게는 2005년 2월까지 전국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의 기본 취지에 따라 주로 기초 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등 사회 소외 계층이 참여했고, 지방문화를 이끌어 나갈 선봉에 설 문화가족들도 일부 참여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행사 수는 총 876회, 참가자는 총 61,681명이 넘었다.

## 서울역사박물관



2002년 서울시에서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시민들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

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Program

▶▶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들에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전시 설명을 들은 후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재설명하는 체험을 통하여 유물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가족단위의 독특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사진 접수)

▶▶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의 밤”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초여름밤을 배경으로 ‘Fun & Joy 콘서트’, ‘재즈의 향기 속으로’, ‘청명한 아리아의 세계’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 홈페이지 | <http://www.museum.seoul.kr/>

• 안내 | 02-724-0114

## 삼청각



전통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다례, 규방공예, 가야금, 판소리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통예능보유자의 출연과 국악계

유명인사의 해설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국악, 맑음...” 프로그램, 국악, 목공예, 다례, 한지공예 등 한국 전통 문

화를 실지로 체험해 보며 학습할 수 있는 “삼청각 전통문화 여행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수업 진행이 가능하여 외국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홈페이지 | <http://www.samcheonggak.or.kr/>

• 안내 | 1588-7890

##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사업단에서는 정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전국의 43개 사찰을 선정하여 사찰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침예불 종성을 들으며 깨어나 음식으로 공양을 하고, 단정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참선을 통해 정신적 풍요를 만들어 나간다. 인터넷으로 예약날짜와 소재지, 운영유형, 사찰명 등을 입력 후 예약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templestay.com/>

• 안내 | 02-732-9927

## 안동문화체험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답사 포인트 개념의 안동문화 가이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가족체험프로그램, 학교체험프로그램, 학원체험프로

그램, 부모님 효도관광 등의 기본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홈페이지 | 안동문화관광정보센터

<http://www.welcomeandong.com/>

• 안내 | 054-858-2533~4

글 \_ 서희정 기자

# 지방문화원의 문화체험프로그램 전국 네트워크 방안 모색해야



## 요약

통합복권기금으로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펼친 2004년 문화체험프로그램의 1단계 사업은 전국 문화원 총 221개 중 215개에서 계획서를 낸 것을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자문을 거쳐 각 지방문화원 별로 실시했다. 이 사업에는 595회의 행사가 이루어졌고, 총 40,039명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주 체험 지역은 시행 지방문화원 관내로, 이는 자기 고장의 문화체험지를 개발하고 안내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영역을 넓히고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게 하자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2단계 사업은, 우수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그 중 50개 지방문화원에 시행권을 주고 지원하게 되어 이루어졌다. 총 156회의 행사가 치러졌고, 총 10,957명의 참가를 기록했다.

3단계 사업은, 전국의 16개 시도 지회에서 실시했는데, 총 125회에 10,685명이 참가했다. 1,2단계에 비해 원거리 체험이 많았다.



## 단기 개선점 및 추진방향

### ■ 취지 및 기본방향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전국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의 질 높은 문화향수권 확보와 건전한 여가문화 개발, 확산이 가장 큰 취지이다. 그러나 ‘문화소외계층’과 ‘문화향수권’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복지차원’이나, ‘문화차원’이라는 혼선이 일었다. 이는 마땅히 ‘문화차원’으로 나아가야 건전한 여가문화 개발과 확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화소외계층’이란 용어는 ‘지역민’으로 대체해야 타당할 것이다.

### ■ 예산 배분 및 집행

2004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문화원 수 대비로 배분하였다. 이러한 배분은 일단 수치적으로 드러나기에 공정성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적, 산술적 평균에 의한 지원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예산이 비교적 넉넉한 문화원과 그렇지 않은 문화원 사이의, 지역 인구가 많은 문화원과 적은 문화원 간에는 같은 액수라도 그 효용은 크게 달리 나타날 것이다. 때문에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내용적 평균에 의해 예산이 충실하게, 공정하게 배분돼 문화체험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예산 배분 방법이 면밀히 연구, 검토돼야 할 것이다.

### ■ 추진 및 심사 과정

외부 전문 자문위원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자문위원이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본보기를 제시해 각 지방문화원이 참조하게 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겠다.

단계별 사업의 심의도 지방문화원이나 시도지회에서 내놓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계획안만 참조하여 이뤄졌는데 이보다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심의를 면밀히 하면 할



수록 그 심의 대상의 수준과 내용은 실질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때문에 자문, 심사위원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1,3단계의 대상 지방문화원 전원에 지원하는 방안도 개선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계획내용이 현저히 떨어지면 탈락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내용

### (1) 문화체험 프로그램 유형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는 문화체험 유형을 문화유적지 탐방, 역사체험, 생활문화체험, 자연환경 체험, 공연 관람, 생태기행, 기타 등으로 크게 분류해 물었다. 그러나 이 대분류에서마저도 문화유적지 탐방과 역사체험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을 좀 더 세밀히 연구, 개발해 그 범주를 잘 구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국민여가생활을 선도할 것이므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범주화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좋은 프로그램의 유형을 끊임없이 개발, 지방문화원에 제시하고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의 특징을 살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한다면 여행사 등 다른 단체에서도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문화경쟁력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가 원하는 유형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상당수가 원하는 공연관람 등 좋은 프로그램만 택하면 충분히 훌륭한 문화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참여계층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젊어지고 그 전망을 밝게 하려면 청소년층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또 동원 방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마땅히 지방문화원에 대상층 선정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져야 하고, 또 각 지방문화원에서도 프로그램 유형이나 수준을 그들의 선호도와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이다.

### (3) 체험지역

1단계 사업은 관내, 2단계 사업은 가급적 지회 내를 고수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관광이 아닌 문화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발굴, 개발을 위한 연구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별히 예비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진행

참여자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통솔식 진행은 문제가 있다.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 그들이 주도하면서 주인공이 되는 문화체험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의 진행인력 부족도 문제가 있으므로 관내 자원봉사자와 문화가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화체험 프로그램 중·장기 발전방안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여가문화생활의 본보기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번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여행사가 자신들의 상품에 집어넣고 싶은, 타지역에서도 한번 체험에 참여하고픈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각 지방문화원에서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문화가 곧 경제, 국가경쟁력인 시대인 것이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고유한, 참신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지회가 나서는 것이 옳다. 타 지역에 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내놓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 별로는 규모가 작으니 지역 벨트를 묶는 것이 나올 것이다. 때문에 각 시도 지회에 지원된 3단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산을 지역 내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전환해, 지회가 관내 문화원과 협조하여 지역 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해를 더할수록 지방문화원은 네트워크화 되고 그렇게 되면 전국문화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국문화네트워크는 유,무형의 전국 문화 총량을 지역별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각 지역은 경쟁적으로 지방문화 발굴과 개발, 문화인력 양성 등에 나서며 문화경쟁력을 키워 21세기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배양시킬 것이다.

앞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은 국민 저변으로부터의 수준 높은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른 문화역량 배양으로 21세기를 문화국가로 선도해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글 \_ 김보라 기자



# ‘문화 중산층’ 이 두터워야 선진국이다

##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많아도 전보다 여건이 나아졌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화 종사자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경제 호황기 때에도 그랬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문화계 형편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

그래도 요즘 문화 현장에 가보면 생동감이 느껴진다.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연령층이 다양해졌고 호기심, 열정 같은 게 보인다. 썰렁하기 그지없던 십 수 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경제성장에 따라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문화적 욕구가 서서히 고개를 든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그래도 우리 문화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중문화를 접하기가 전보다 쉬워진 것은 사실이다. 만인의 오락으로 정착된 영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상미디어의 발달로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요즘 부쩍 자주 거론되는 ‘문화 향수권’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갈 길이 너무 멀다. 영화 대중음악 같은 일부 문화 분야에서 일부 상황이 개선되었을 뿐이다.

문화 소비를 위해선 여러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문화에 관심 갖기는 어렵다.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세계적인 걸작 미술품이나 클래식 명곡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예술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선 요원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시간과 돈이다. 문화 소비활동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넉넉하더라도 문화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문화로부터 소외된다. 이 점에서 문화는 인간 활동 가운데 높은 비용과 의식수준을 요구하는 고도의 정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지도 않고, 소외계층도 아닌 어정쩡한 계층으로 문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빈부 격차의 확대에 따라 차츰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중산층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 소비층으로 적극 뛰어들다면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한 축복이 될 것이다.

중산층을 문화의 적극적 소비자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문화는 안정적 기반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문화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학력 계층이 문화의 주 소비층을 이루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생활에 소외되거나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 강조되는 문화향수권은 인격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문화적 소양과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다. 가령 패션에서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디자이너 가운데 유능한 사람은 뛰어난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 터이고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 다시 말해 문화의 시대에 문화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은 곧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계층과 신분에 상관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절실하다. 흔히 정부와 국가 책임이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최근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과 이미지 고양을 위해 문화 행사를 후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평소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문화 현장에 초대하는 일이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연단체들도 문화 소비층을 늘리는 일에 나서길 바란다. 당장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저변을 확대하는 일로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소외계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여유가 있지도 않고, 소외계층도 아닌 어정쩡한 계층으로 문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빈부 격차의 확대에 따라 차츰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중산층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 소비층으로 적극 뛰어들다면 우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한 축복이 될 것이다.

상위 계층의 문화 소비만으로는 문화 발전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인구 5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중간 규모의 나라에서 '한류 현상' 같은 문화적 돌풍을 일궈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미국이나 일본이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은 인구 규모에 힘입은 바 크다. 인구가 많다보니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출판물 가운데 화제작이 나오면 영어권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출판사는 물론이고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성공 사례가 문화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은 시장규모가 문화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를 소비해주는 인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중산층을 문화의 적극적인 소비자로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문화는 안정적 기반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중산층의 문화소비는 국민 소득과 비례해 늘어난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를 돌파할 때 문화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단계에서도 '문화 중산층'을 늘리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문화중산층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춰야

문화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1, 2년에 그칠 일이 아니고 장기적 플랜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가장 절실한 것은 문화 교육을 일찍 실시하는 것이다.

문화는 조기교육이 필수적이다. 문화적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중고교 시절에 문화에 친숙해 놓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예술 교육은 거의 실종되어 있다시피 하다. 대학에 들어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져 보지만 20세가 넘어 문화의 기초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다. 고급문화는 대개 지루하고 난해하므로 자꾸 일상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회에 진출하면 바쁜 일상에 묻혀 문화의 생활화는 더 어려워진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문화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들도 새로운 시각을 지녀야 한다. 국내 문화상품은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좋은 음악회 한번에 수십 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연극 한편도 몇 만 원이 있어야 한다. 책값도 몇 년 사이 부쩍 올랐다. 문화소비층이 취약하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받아내자는 발상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화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싼 문화상품은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빚는다.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문화와 멀어지게 되고 중산층들이 문화에서 멀어지니까 문화 종사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발상의 전환이 문화계에도 요구된다.

문화 중산층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문화국력, 나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 정부나 문화 종사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열정을 보여야 한다. 문화에 등을 돌린 중산층을 문화 현장으로 끌어내는데 지혜를 모으자.

글 \_ 홍찬식 | 동아일보 논설위원

# 문화체험 장소 이동중 '버스 사랑방' 운영

## 1. 글을 시작하면서

1960년대를 전후하여 전국각지에 문화원들이 설립되었으니 문화원의 역사를 50여년이라 하여도 될 것이다. 대개의 문화원관계자가 느끼는 일들이겠지만 2004년도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복권기금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문화원역사 50년을 통하여 대단히 소중하고도 값진 사업의 하나였다. 특히 당해년에만 그치지 않고 2005년도 까지 계속 지원되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관계자의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과 한차원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물론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과정을 평가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적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연합회중심의 보다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노력이 문화원 모두에게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하여 기정리된 평가 등에 대한 사항들에 덧붙이는 부분이 되겠지만 단위 문화원의 실무책임자 된 입장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얻어낸 점들을 간략히 정리함으로 각 문화원의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2. 함평문화원의 2004년도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함평문화원은 1단계와 2단계사업을 지원받아 1단계 3

회, 2단계 1회로 실시하였다. 3단계인 도지회의 경우는 참여프로그램으로 15인이 참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문화원이 기획추진한 1단계와 2단계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겠다.

문화체험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지침을 접하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프로그램의 성격 규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문화원은 역사체험위주의 답사기행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체험참가자를 선발하되 참가자 선정원칙을 ①지역균등의 원칙(군단위인 관계로 읍,면지역 고려·안배) ②계층적합성의 원칙(소외계층,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등의 분명한 해당자 선정)에 근거하여 선정키로 하고 이사회회의 결의를 얻어 1단계사업부터 추진에 들어갔다.

### 1) 1단계사업의 추진

1단계는 먼저 당일 시행 2회와 1박2일 시행 1회로 총3회를 추진키로 하고 1단계 하루일정의 1회차 사업으로 독거노인초청역사기행을 실시하였다. 읍,면의 분원장들이 추천한 총45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남의 남해 해안도로를 거쳐 경남사천지역까지에 이르는 역사기행을 실시하면서 기본주제는 효와 함께하는 역사탐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추진과정 중 가장 문제점은 출발지점까지의 집결문제와 귀가시 어려움이



도출되어 분원장들께서 솔선수범하는 헌신적 노력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1단계 하루일정의 2회차 행사는 불우청소년초청 역사 체험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직원과 상의한 후 관내 불우 청소년시설인 삼애원과 시온원으로부터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하여 45명을 선발하고 참여가 용이한 토요일을 정하여 하루일정으로 오전에는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오후에는 새로 문을 연 인근 목포지역 소재의 자연사박물관을 견학답사한 후 유기농자연포도밭을 둘러보며 자연영농현장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 문화체험에는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량이동 시에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단계 사업의 제3회차 운영은 1박2일 일정으로 19세기 말 이서구라는 관찰사가 호남지역을 노래한 단가로 국창 임방울이 불렀던 “호남가 따라잡기” 문화체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문화원 임원과 관내 문화예술인 20여명, 그리고 농어촌 소외계층 노인 25명 등 총45명이 참여하는 전라도 문화기행 위주의 행사로 실시 하였다.

특히 차량을 이용하는 장시간의 이동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박2일 일정의 기간에 호남가 익히기,

자기가정 자랑하여 알리기, 족보 살피기를 통한 선조 살피기, 방문 지역별 현황 및 통계 익히기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버스사랑방”을 운용하여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사를 끝내고 돌아갈 때는 말 그대로의 문화 한가족이 자연스럽게 엮어지는 뿌듯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문화체험행사는 대개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이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양 인식되고 있지만 문화체험의 경우는 참여자 모두에게 발표와 대화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문화를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 2) 2단계 사업의 추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나니 2단계 사업은 어느정도 나름대로의 추진경험이 축적됨으로 쉽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나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착수하고 보니 2박3일이라는 사업 추진기간의 어려움과 함께 당장 역사탐방 대상지역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다. 또한, 참가자 선정기준 및 선발에 따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챙겨내서 추스르기로 하였다. 우선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주제를 문화유적순례 답사교육으로 설정하고 가능

한한 관광성을 지양하고 향토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숙박지는 온천지역 등과 연계함으로 우수관광지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상의 기본 원칙으로 정한 지역균등의 원칙과 계층적합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만 참고하기로 하여 참가자 선정기준을 모자가정,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을 30%, 국악인, 서예가, 미술, 문학 등의 문화예술가 30%, 농어촌 소외계층 40% 등의 비율로 하되 문화예술인 등은 재경, 재광 등 지역 출신 향우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 문화예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참가자 선정을 마친후 2박 3일 일정의 대상지를 동해안 문화권 역사탐방 기획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탐방교육 교재를 제작 발간하는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1단계 사업의 1박2일 일정에서 성과를 거둔 버스 이동시간을 이용한 “버스사랑방”을 2단계 사업에도 도입키로 하고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활동중이신 원로분들의 문학이나 예술의 세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차량별로 구분하여 마련하고 행사가 끝나서 돌아올 때는 참여자 모두가 한편의 시와, 한국의 노래, 그리고 참여자 이름과 주소를 모두 익히는 세가지 사항을 필수 이행사항으로 주지시켜 추진하였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구급약은 물론, 비상 연락망까지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2단계 사업은 보다 철두철미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요구됨을 실감하였다. 우리 문화원의 2단계 사업은 고향과 타향이 만나고 청장년과 노년층이 서로를 이해하며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생활속에 용해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탐방하여 접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문화체험행사가 되었다.

### 3. 문화체험행사에 대한 소고(小考)

특별지원된 1단계, 2단계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원 실무자로서 20여년 세월을 일해온 보람을 느끼기도하였고 한편으로는 자료와 정보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각 지역문화원과의 교류가 절실함을 느끼면서 몇가지 소회를 정리해본다.

- 1) 각 지역의 지방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과의 지역문화정보 시스템(network)이 하루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
- 2) 문화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각각의 조직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3)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에서 실감하듯 지역의 향토문화유산 해설가 양성은 문화원의 몫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을 연합회에 간곡히 건의한다.
- 4) 문화지킴이 운동의 측면에서 문화재 보호사업의 추진을 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5) 문화체험행사는 물론 일반관광에서도 장시간 이동시의 버스 이동시간 등에 우리문화와 건전한 생활문화를 접목시켰으면 한다.  
(ex : 시외우기, 우리가락익히기, 가정사정살피기, 족보 자랑, 이야기방 운영 등)
- 6) 지원된 예산의 운용은 철저히 각개 문화원의 자율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7) 도·농 교류차원의 보다 활발한 문화적 유대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한다.

### 글을 마치면서

2004년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마치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인 진단을 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지어는 평가자료집까지 제작·배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의 한차원 높은 자각과 결의, 그리고 더욱 부단한 연구와 노력, 문화원간의 끈끈한 정보교환을 통한 유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실감하였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각 지역 문화원의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글 \_ 김창훈 | 함평문화원 사무국장



# 일본인도 혼동하는 '다케시마' 라는 2개의 지명

일본의 일부 보수우익들이 걸핏하면 독도(獨島) 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주한 일본대사까지 그 일을 거론하고 나오는 데는 경악할 노릇이다.

도대체 상대를 어떻게 보기에 주재국에서 자국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은 말을 꺼낸 당사자를 욕하기 전에 우리정부의 외무당국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할 사건

이다. 평소에 어떻게 외교를 했기에 일본 대사에게 그런 식으로 호락호락하게 보였다는 말인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대처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외교부서장이 말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던가? 물론 6자회담이니 한미동맹의 위기이니 해서 일본과 걸친 일이 하나 둘이 아니겠지

‘독도’에서의 ‘독’은 우리말에 ‘돌(石)’을 뜻한다. 우리말 고어(古語)에는 ‘돌’을 ‘독’이라 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도 ‘돌’을 ‘독’이라 하는 사투리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돌 바위로 된 섬, 즉 ‘돌섬’이란 순 우리말 우리 땅 이름이다.

만 그렇다고 해서 내 나라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데 외교수장이 강하게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독도’가 예전부터 우리 땅이었음은 명확한 역사자료가 있는 것이지만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올 때는 저들도 나름대로의 역사자료를 근거로 내놓을 것이며 만약에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될 경우에는 국력이 센 일본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판정이 될 수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떠들면 저들의 고등술책에 말려들어서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저들의 계획을 도와주는 셈이 된다. 당장 저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 흥분을 금하고 좀더 시일을 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아닌가.

사실이지 ‘독도’는 역사로 뿐 아니라 ‘독도’라는 이름의 어원(語源) 자체가 우리 땅임을 옛날부터 증거하고 있다.

‘독도’에서의 ‘독’은 우리말에 ‘돌(石)’을 뜻한다. 우리말 고어(古語)에는 ‘돌’을 ‘독’이라 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도 ‘돌’을 ‘독’이라 하는 사투리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도’는 돌 바위로 된 섬, 즉 ‘돌섬’이란 순 우리말 우리 땅 이름이다.

일본사람들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말의 ‘독섬’을 저들 입으로 발음을 하다보니 그렇

게 불려진 것이지 독도에 대나무(竹)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말 ‘독’을 일본인들에게 발음시키면 저들은 혀가 짧아서 독이라 짧게 발음하지 못하고 ‘도쿠’라고 길게 늘여서 발음을 한다. 실례로 핫독(Hot dog)을 ‘핫도구’라고 하고 자동차가 백(back)한다 하면 저들은 ‘빠쿠’한다 라고 하지 않는가.

독을 도쿠라고 하다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모음조화(母音調和)에 따라 도쿠가 다케가 된 것이고 ‘섬’은 섬이라 짧게 발음되지 않아서 길게 빼서 ‘서마’ ‘서마’하다가 그 또한 ‘서마’가 ‘시마’가 된 것일 뿐이다.

이 말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인에게 ‘독섬’이란 발음을 해보라 하면 알 수 있고 독도에 데려가서 보여주면 더더욱 잘 알 수 있다. 독도는 바위로 된 돌섬일 뿐 대나무 한 그루터기 보이지 않는다.

영리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일본사람들이 대나무 한 그루 안 보이는 섬을 대나무 섬이란 뜻의 죽도(竹島)라고 부를 까닭이 없다.

저들이 진짜로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일본 아이치縣의 다케시마에는 분명히 저들이 다케(竹)라고 말하는 대나무가 무성하고 또한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좀더 정확히 소개하면 아이치현의 가마고오리市 다케시마초(組)(註:우리의 區에 해당됨)에 가면 해안선을 따라 길이 뻗어 있고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200미터 정도 되는 다리를 건너서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일본의 대표적 온천관광지 다케시마(竹島)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다케시마라 하면 아이치현의 가마고오리 다케시마를 연상하지 울릉도 옆 한국 땅 독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다만 극우분자들이 자기들 세력을 키우기 위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대로, 아는 이에게는 아는 이대로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다케시마든 좋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할 뿐이다.



• 다케시마

일본 사람들은 말한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보다시피 이렇게 우리 해안선에 가까이 붙어 있는 다케시마를 왜 자꾸만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를 부리는지...”

대부분의 일본인

은 다케시마라 하면 아이치현의 가마고오리 다케시마를 연상하지 울릉도 옆 한국 땅 독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

다만 극우분자들이 자기들 세력을 키우기 위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대로, 아는 이에게는 아는 이대로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다케시마든 좋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할 뿐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저들이 ‘쯔시마’ 라고 부르는 대마도 역시 우리말 ‘두섬’에서 따서 갔으니 대마도 역시 원래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날씨 좋은 날 부산 태종대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면 멀리 희미하게 두개의 섬이 보이는데 바로 그 섬이 대마도이다.

가야시대에 왜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저 섬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가야사람들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저 저 섬을 두섬이라 그린다. 잘 보면 두개의 섬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느냐?”하고 가르쳐 주니까 왜인들이 “쯔서마? 쯔서마?” 했다고 한다.

저희들 입으로 발음을 하려니 우리말에는 ‘다, 디, 두, 데, 도’가 쉽게 되지만 혀가 짧은 일본사람들 입으로는 ‘다, 짜, 쯔, 데, 도’ 밖에 안 되니까 저들이 우리말의 ‘두’를 ‘쯔’로 발음하여 ‘쯔서마’ ‘쯔서마’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쯔시마’가 된 것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금년도 사무국장 연수를 일본공민관 견학으로 잡았다가 독도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일본의 공민관은 우리 지방문화원 실무자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꼭 한번은 견학을 할 필요가 있었던 곳인데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독도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제기될 때 외교부서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가원수는 말을 아끼고 백성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마치 양은 뱀비에 뭐 꿇듯이 바글바글 거리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조금성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 감정을 세워 다툰다고 해서 어디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끝이 날 일인가?

다만 위에서 얘기한대로 어문학적으로도 독도가 순 우리말 지명을 가진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논리 있게 설명하면 내가 교유하는 일본인 친구들은 대부분

어문학적으로도 독도가 순 우리말 지명을 가진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논리 있게 설명하면 내가 교유하는 일본인 친구들은 대부분 수긍을 했고 자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인은 다케시마 문제가 방송을 타기 전까지는 온천관광지인 아이치현의 다케시마를 연상했기에 ‘한국인들이 왜 억지 주장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사과했었다.

수긍을 했고 자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인은 다케시마 문제가 방송을 타기 전까지는 온천관광지인 아이치현의 다케시마를 연상했기에 ‘한국인들이 왜 억지 주장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사과했었다.

저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 일본 극우단체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시네마현 의회가 문제를 터뜨린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본의 작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이 36년간 대한제국을 합병하여 우리에게 저질러온 갖가지 민족정신 말살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에 모든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현재 서울의 땅이름에는 일제 찌꺼기가 너무나 많다. 동 이름에서 심지어는 구 이름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편익에 의해 또는 민족정기 말살 차원에서 멋대로 개명하거나 이름을 지은 우리 땅 이름부터 차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임금이 정사를 살피던 창경궁을 훼손하여 동, 식물원을 만들면서 공원화하여 창경원(昌慶苑)이라 이름을 고치고 창경원 서쪽에 있다고 원서동(苑西洞), 남쪽에 있다고 원남동(苑南洞)이라 이름 붙인 것이며,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의 회묘(懷墓)가 있어 회묘리(懷墓里)라 하던 이름을 글씨가 획이 많고 어렵다 하여 회기리(回基里)라고 바꾼 것, 그리고 발음이 어렵다고 장한평(長漢坪)을 장안동(長安



洞)이라 한 것 등등 우리들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제 찌꺼기 땅이름부터 청산하는 것이 일본의 억지주장에 장기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싸움에는 성질 급한 사람이 지는 법이다. 무궁화와 사꾸라 어느 꽃이 더 오래 가는가?

글 \_ 권태하 | 동대문문화원 사무국장 · 작가



# 나를 슬프게 하는 것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하는  
舍店里貯水池집  
늙은 아주머니의 노동이다.

투명한 햇살 아래  
무료히 나르는 나비 한 마리  
깊은 외로움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허망함이다.

담대하라  
치우치지 마라  
말씀위에 굳게 서라  
내영혼의 참회를 독촉하는  
성구(聖句)다.

이제는 허물어져  
누워있는 첫사랑  
기억조차 없는데  
아직도 가슴이 설레이는 워선이다.

밤에 떨어져  
씩여 기름이 될  
그 과원에서  
영거주춤한 자세로  
씩지도 못하고  
기름도 못되는  
나의 초리한 오만(傲慢)이다.

거리의 봄 풍경이 보이는  
장 앞에 앉아  
딱하고 갈라진  
음치(音癡) 가락으로 흥얼대는  
나의 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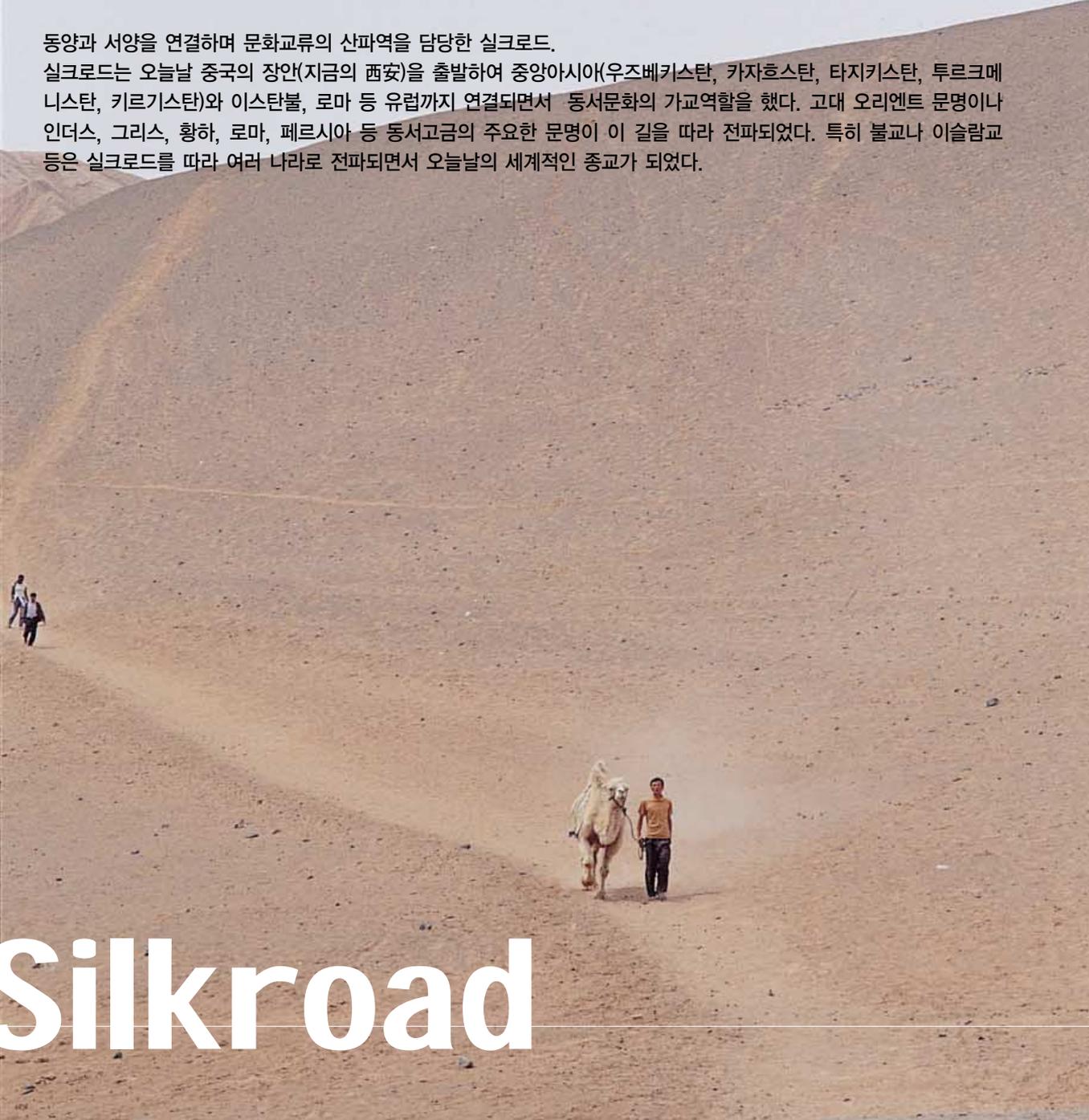


정재권 | 청양문화원장 · 시인  
시집 「수유리에 부는 바람」 「경루참죽나무」 등 출간.  
한국공간문학 시인상 및 한국자유시문학상 수상

# 혜초의 실크로드를 찾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며 문화교류의 산파역을 담당한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오늘날 중국의 장안(지금의 西安)을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와 이스탄불, 로마 등 유럽까지 연결되면서 동서문화의 가교역할을 했다. 고대 오리엔트 문명이나 인더스, 그리스, 황하, 로마, 페르시아 등 동서고금의 주요한 문명이 이 길을 따라 전파되었다. 특히 불교나 이슬람교 등은 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 Silkroad

## 둔황

둔황에 들어서면 시원한 백양나무 숲과 드넓은 목화밭이 사막의 단조로움에 지친 여행객을 푸근히 맞아준다. 인구 10만명을 조금 넘기는 작은 도시에 서역 실크로드를 밟으려는 관광객이 연 30만명을 넘고 있다. 관광지 명사산은 둔황시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모래로 이뤄진 모래를 밟을 때 소리가 울린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 동서 40km, 남북 20km. 산이라고 하지만 나무 한그루 없으나 물결모양의 모래 무늬가 아름답다. 입구에서 낙타를 타고 산 기슭까지 갈 수 있다. 대나무로 만든 모래 썰매도 탈 수 있다. 눈썰매와 비교하면 속도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명사산 근처에 있는 반달 모양의 오아시스 월아천은 수천년동안 한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한다. 이곳에는 몇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노인들은 마작을 즐기고 있었고, 젊은 부녀자들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눈만 내놓은 채 뜨개질로 소일하고 있었다.

둔황 중심가에 있는 사주시장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각종 공예품과 골동품 등 이곳의 민속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밤에 열리는 야시장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장터에 들어서면 특유의 향내가 코끝을 자극한다. 양고기나 닭고기의 이슬람식 꼬치가 가장 흔하다. 20여명이 꼬치구이에 맥주와 곶감주를 거나하게 먹었는데 우리돈 4만원 가량이 나왔다.



## 실크로드의 키워드 혜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인 장안을 통해 실크로드의 문화와 만났고,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학생이 무려 1만명을 헤아릴 정도였다. 당나라와 화친했던 신라는 교역물품으로 금이나 은, 우황, 인삼 등을 가져가, 서역의 문물과 향료, 유리 등을 수입했다. 신라의 고분 황남대총에서 투명한 색깔의 그릇 파편들이 발견된 적이 있다. 그것은 유리였다. 우리는 당시 신라에서는 생산되지도 않았고, 세공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 유리제품은 어디에서 온 걸까. 출토된 유리 구슬에는 하얀 얼굴에 눈이 크고, 입술을 붉게 그린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1.5cm의 작은 구슬에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막대를 모자이크 기법으로 오려 붙여 당시의 세공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리의 본산지인 로마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제품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경주의 왕릉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파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동쪽나라 신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쪽 로마와 직접 교역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유입된 것을 수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와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키워드는 8세기 내내 치열하게 살다간 혜초(慧超)스님일 것이다. 그가 신라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신라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직접 확인했고,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통해 인류에게 8세기 서역인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혜초가 서역기행을 떠난 연대는 분명치 않다.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기 722~72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혜초는 경주에서 바닷길을 따라 중국의 평주와 광주,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을 거쳐 간절히 원했을 불국토(佛國土) 인도에 도착했다. 인도의 오천축(동·서·남·북·중앙천축)을 여행한 내용이 왕오천축국전이다.

### 해골만이 지표가 되는 사막

혜초의 기행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그의 저서 왕오천축국전에서 산견되고 있다. 그가 투가라국(吐火羅, 지금의 아프카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을 때의 기록에 '길은 거칠고 눈은 산마루에 쌓였는데 /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떼가 많구나 / 새는 날아 깎아지른 듯한 산 위에서 놀라고 / 사람은 좁은 다리 건너기를 두려워 하도다 / 평생 눈물 흘리는 일 없었는데 / 오늘만은 천줄이나 뿌리도다' 라고 했다.

그 고통이 어디 혜초뿐이었겠는가.

실크로드 타클라마칸 사막을 낙타에 의지하며, 지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비단과 보석을 사고 팔던 상인들, 그리고 세계정복에 나선 제국의 병사들도 이 사막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과사를 결정했으리라. 동진시대의 고승 법현(法顯)이나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로 불렸던 현장(顯藏)처럼 진리를 찾아 구도를 떠난 승려들도 운명은 같았다.



법현은 사막을 지나던 고통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망망할 뿐. 가야할 길을 찾으려 해도 어디로 가야할 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언제 이길을 가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이의 해골만이 길을 가르쳐 주는 지표가 돼 준다’ 고 기록했다.

혜초는 4년 동안의 인도여행을 마치고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을 지나 중국에 둔황(敦煌)으로 들어왔다. 둔황은 사주(沙州)라는 옛지명이 말해주듯 광활한 사막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해발 5천미터가 넘는 천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줄기가 수천리 땅속을 흘러 척박한 사막속에 형성된 진주같은 오아시스 도시이다. 그러나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옛부터 구법승이나 병사, 상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서북지역 여러 민족의 쟁탈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늘 약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 천년의 수면에서 깨어난 왕오천축국전

혜초에게 있어 둔황은 인도만큼이나 중요한 곳이었다. 혜초는 이곳 막고굴(莫高窟)에서 불경을 필사하며, 5천축국의 견문록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유적으로 중국의 3대 석굴중 하나인 막고굴은 4세기경 승려 낙준(樂尊)에 의해 불굴을 만들기 시작하여 당나라 때까지 무려 1천여개의 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속칭 천불동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492개의 굴이 보존되어 있다. 그중 10여개의 동굴을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다.

막고굴은 굴마다 불상을 세우고, 천장이나 벽마다 세밀한 벽화가 가득하다. 그런데 굴마다 불상의 모양이나 벽화의 내용이 다르다. 이 벽화를 모두 합치면 4만 5천 평방미터에 이르고 이것을 연결하면 30km가 넘는다고 하니 1천년의 불

## 투루판, 우루무치

투루판은 위구르어로 ‘늦은 땅’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지역은 해발 -154m로 회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둔황에서 기차로 10시간 거리에 있다. 한여름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간다. 기온이 건조하여 이곳의 건포도는 세계적으로 유명. 시내 간판은 이슬람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고, 얼굴이 작고 크고 선한 눈에 쌍꺼풀이 선명한 이슬람인들을 통해 이곳이 서역임을 실감하게 한다. 기원전 2세기부터 14세기까지 번성했던 교하국의 폐허지 교하고성과 고창국의 유적 고창고성 등의 유적과 손오공 일행이 불의 방해를 받아 철편공주와 싸웠다는 서유기의 무대인 화염산이 불거리다.

우루무치는 투루판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 신강자치구 중 가장 큰 도시다. 이곳에 있는 천산의 만년설이 녹아 둔황이나 투루판 같은 오아시스 도시가 형성되었다. 우루무치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천지와 남산목장. 천지는 시에서 동북쪽으로 115km 떨어진 해발 1,980미터에 있는 호수로서 흡사 백두산의 천지를 연상시킨다. 천산으로 가는 곳곳에 현대 생활을 거부하는 유목민족의 전통가옥인 ‘빠오’를 만날 수 있다. 남산목장은 유목생활을 하는 하자크족의 방목지로서 드넓은 초원을 말에 타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교미술이 막고굴 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둔황이 회교를 비롯한 이교도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 막고굴도 수난을 당했다. 불상의 불두는 대부분 잘라져 나갔다. 벽화의 불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눈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11세기 중엽 서하(西夏, 중국의 북서쪽 감숙성 지역에 있었으며 11~13세기 약 2백년간 존속한 탕구트족 국가)의 이원호가 둔황을 침략했을 때 도시는 온통 폐허가 되었다. 이때 막고굴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은 모든 불상이나 경서 등을 모아 동굴 석실에 넣고 봉한 뒤 흙으로 도장을 하고는 피난을 떠났다. 그러



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승려는 한 명도 없었다. 당시의 사료들은 1천년을 어두운 석실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20세기 초반 고대 오아시스의 폐허에서 세계 문명사에 획을 긋는 유물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막고굴에서는 3만권에 달하는 종교, 철학, 문학, 예술,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 나왔다. 그러나 1930년 중국이 유물 반출을 금지할 때까지 약 30년동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지로 반출되었고 현재 중국에는 훼손이 심하고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7천여권만이 소장되어 있다.

당시 프랑스의 동양학자 펠리오는 6천여권의 책을 파리로 가져갔는데 그 가운데 앞뒤가 떨어져 나간 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되었다. 대승불교와 소승 불교에 대한 자세한 기록 외에도, 8세기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유일한 서지라는 점에서 혜초의 고행만큼은 지금껏 살아있다. 왕오천축국전은 현재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글 \_ 전명찬 |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사업부장

러시아 역사기행기

# 이제는 눈물을 믿는가, 러시아여!



2005  
삼위일체성당  
문종

2005년 5월 13일, 생애 처음으로 러시아와 만나는 날이다. 인천공항 10시 도착을 위해 아침 5시에 버스에 몸을 실었다. ‘현지 러시아는 한국의 봄날씨와 비슷’ 하다고 했겠다? 공항에서 홍일점 정정희(鄭貞姬) 당진 문화원장을 만나 ‘환하고 아름다운 여행’이 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비행기가 12시 50분에 모스크바를 향하여 날개를 폈다. 한국과 러시아의 시차는 5시간. 탑승하는 전체 9시간에서 5시간을 빼면 오후 5시 20분에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기류는 순조로운 편이었으나 몇차례 기체가 오르내렸다.

모스크바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현지 버스에 오른 우리는 여행사 인솔자 유진숙(柳真淑)씨를 합하여 총 23명, 모스크바에서 우리를 안내할 하순주(河舜珠, 32세)씨가 인사를 했다. 하순주씨는 모스크바에서 연극영화 전공 박사과정중인 유학생이었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 모스크바의 5월은 새잎피는 초봄

식당과 숙소로 가는 길이 심한 교통체증을 보였다. 요 근년에 자동차가 많아져 주말(러시아도 주5일 근무)이면 체증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다. 이를 두고 ‘주말의 모스크바는 관광객이 지킨다’나, 이 나라 GNP는 200불이고 모스크바는 400불이라고 했다. 부자와 빈자로 양극화된 러시아는 중상층이 없다. 계절은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7개월의 긴 겨울을 거쳐 봄 여름 가을이 마치 목이 짧은 미녀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지나가는 모양이다. 러시아의 4가지 자랑이 ‘백야·보드카·미인·예술’이라니 이 나라 국민들의 감성과 열정이 감잡히는 듯 했다.

모스크바의 5월은 새싹이 움을 틔우는 초봄이었다. 해는 점점 길어져 밤 11시에도 땅거미에 잠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백야라 할 수는 없다 한다. 새벽 3-4시가 되어도 대낮같은 6-7월이 백야라면 1-2월은 낮시간이 토끼꼬리같은 흑주로 바뀐다.

가이더의 설명이 이어지는 시간에 나는 잠시 감격의 땅 러시아를 떠올렸다. 단혀있던 시절, 러시아는 거대한 공포와 의문의 땅이었다. 지금 기억에도 생생한 1990년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30억 달러라는 개발 차관을 치르고 러시아 최초의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만났고 상황이 여기까지 급진전된 것이다. 그때 우리는 뒷돈댄 것은 모르고 우리의 정상이 고르비와 과연 어깨를 겨룰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이제는 러시아를 제집 드나들듯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차관준 것이 헛구멍에 돈다발 풀어놓은 것 보다는 백번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러시아는 미국에다 헐값에 알라스카를 팔아 치웠다. 쓸모없는 땅이니 별생각없이 넘겨버린 것이다. 그러고도 세계에서 가장 땅 덩어리가 광활한 나라이니 새삼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등 거대한 대륙 문학의 거장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가이더는 러시아에 체재하는 동안은 한시도 소매치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특히나 동양사람만을 골라서 괴롭히는 ‘스키네드’라는 애들은 연령대가 16-19세인데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별명처럼 못된 만행도 서슴치 않는다. 이들은 스탈린 숭배주의자이며 머리를 깎고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이면 어디든 범행을 자행한다. ‘스키네드’는 한 마디로 ‘마피아’이며 러시아의 정치 경제는 ‘마피아’에 이어져 있다는 것. 스키네드는 돈을 만들어 일부는 국가에 헌납하고 국가는 그 대가로 이들을 내놓고 보호한다고 했다.

시가지에 들어서자 깨끗한 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물었더니 하루 3차례 짬은 살수차로 청소를 한다. 정말이지 떨어진 밥알도 주워 먹을 만큼 길거리가 깨끗했다.

시가지를 거치면서 주차된 ‘한국철도 유도단 버스’를 보았다. 요즘 러시아유전개발의혹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묘한 여운이 감돌았다.

러시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침상이 비좁고 불편했다. 신체는 크고 땅덩어리도 넓은 자들이 어머니 자궁 안을 생각했는지 신장보다 턱없이 짧은 침대가 이들의 문화양식이었다. 베개도 큐손을 겸한 목받이 정도였다. 러시아인들은 대충 걸터 자는 ‘새우잠’에 익숙히 적응한다.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도 180Cm가 넘는 거구였는데 그 불편한 침대에서 걸터 자며 거작을 창작한 일로 유명하다.

가이더는 동양박물관으로 향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러시아어를 학습시켜 주었다. 즈드라스트브이쎄(안녕하십니까?), 스파씨바(감사합니다), 브리비엣(안녕), 투알렛(화장실), 빠저아스타(천만에요), 니엣(아니오), 하

라쇼(좋습니다) 등등. 일흔이 넘은 어른들이 초등학생처럼 남의 나라 말을 연습하는 모습이 그리도 천진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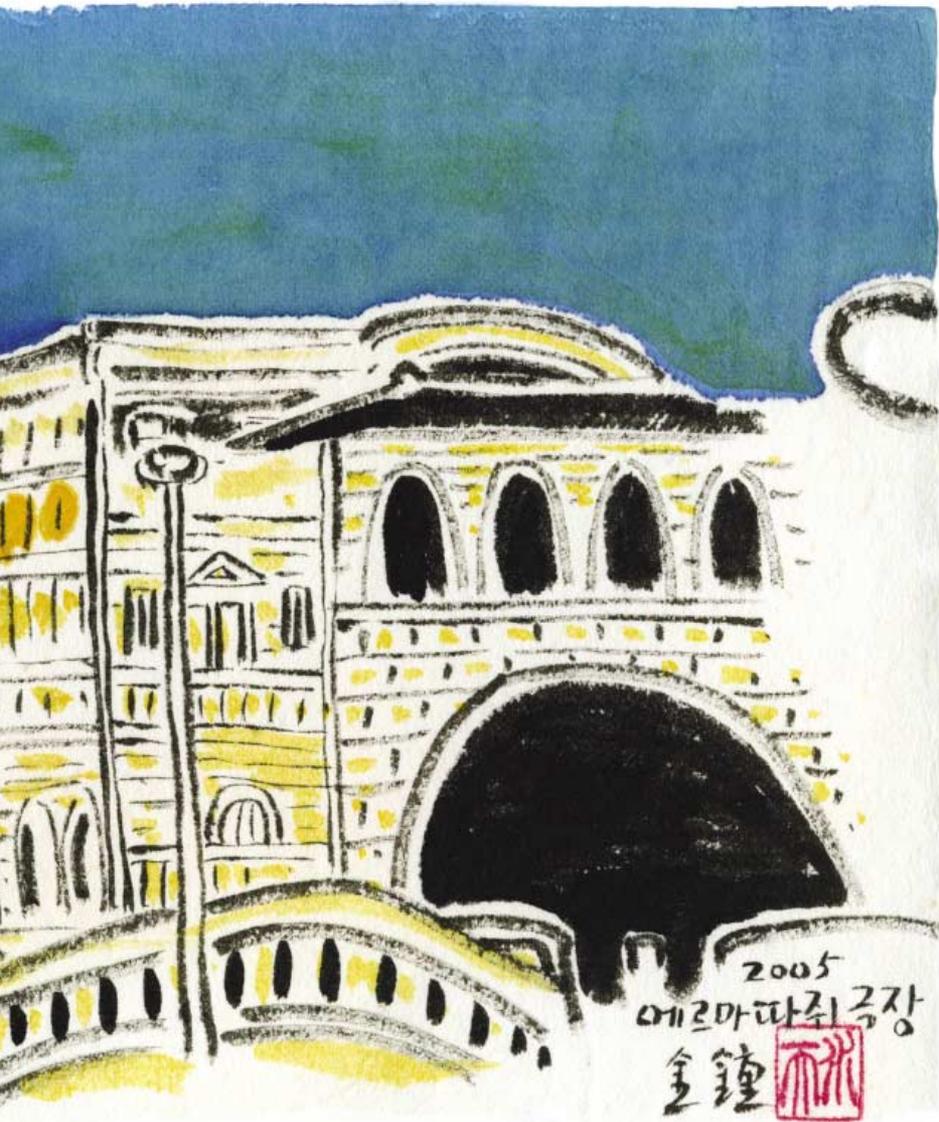
푸쉬킨 도서관 앞을 지나는데 얼핏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처럼 러시아 19세기의 사실주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앉아 있었다. 더 가까워지자 웅크린 자세의 고통스런 표정이었다. 생전의 도스토예프스키는 간질병 환자였고 가슴의 통증이 심했다 한다. 그러면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에서 빈곤과 자유의 문제를 개성있게 그려낸 엄청난 작가였다.

### 붉은 색을 띠어서 얻는 이름 ‘붉은 광장’

박물관 건물은 낡았다. 7~8명의 관계자가 나왔는데 모두가 여자였다. 한국관련구역은 이리나라는 부관장 담당이고 1980년에 문을 열었다 한다. 전체 소장품은 150점 정도. 인도,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한국 등이



참여하고 레닌이 이 박물관에 와서 사인을 했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동양박물관장과 전국문화원연합회장 사이에 친서교환과 함께 계속적인 교류를 다짐했다. 박물관 내의 소장품들은 모두가 기증된 것들이며 특히나 1950년에 북한의 김진도씨가 선물했다는 소치 선생의 <묵묵단> 등이 인상에 남았다.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원장들이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일차로 유서 깊은 유럽文化의 중심지인 러시아文化에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는 권용태(權龍太) 회장의 답사가 인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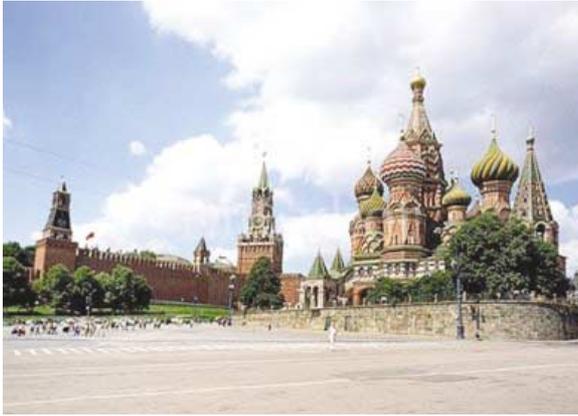
이었다.

교류행사 후 ‘붉은 광장’을 찾았다. 15세기까지는 ‘아름다운’이었는데 들어선 건물들이나 벽면이 붉은 색을 띠어서 얻은 이름이 ‘붉은 광장’이다. 이 광장의 표지 건물은 바실리 성당이다. 1588년 세간에서 존경받던 바실리가 성(聖)바실리로 봉해지고 이 성당의 북서쪽 모퉁이 근처에 장사된다. 그리고 그의 묘위에 그의 이름을 붙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대성당 전체를 바실리성당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성모출현 대성당으로도 불리는 이 성당은 이반 뇌제(雷帝)의 명령에 따라 러시

아 군대가 까잔 한국(汗國)과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세워졌다. 건축 양식도 독특하다. 가장 높은 지붕은 47.5m. 지붕의 다색처리와 밑부분 풀모양의 장식은 17~18세기에 나타난 것이다.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의 위대한 심장이요 상징은 크레믈린이다. 한국에서의 크레믈린은 융통성이 없거나 비밀에 가득 찬 닫혀진 인물로 통한다. 크레믈린은 배들이 운항하는 모스

크바 강과 네글리나야 강이 만나는 보로비즈게 언덕에 위치하며 모스크바에서 가장 역사 깊은 지역이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에 슬라반스끼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1147년에 연대기로도 기록된다. 이때부터 크레믈린 주변에는 도랑이 파여 있었고 백석의 굳건한 성채를 쌓았다. 크레믈린은 모스크바가 수도로 성장해 감에 따라 사상적으로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해 갔다. 그 후 국가기관들의 대대적인 재건축에 힘입어 병기창, 상원건물, 대크레믈린 궁전, 무기 궁전 등이 당대 러시아의 최고 건축예술가들인 라



스트렐리, 일보프, 까자코프 등에 의해 감각적인, 그러나 위용을 자랑하는 규모로 세워지게 되었다.

크레믈린은 그 느낌부터가 장엄했다. 성채의 윤곽은 거대한 영역 안에 부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성벽의 총길이는 2.235Km. 이 곳에는 18개의 군사시설로서의 탑이 있고 벽면의 두께만도 5-6m이다. 17세기에 들어 28m에서 71m에 이르는 처마 모양의 구조물들이 그 위에 세워졌다. 그 중 높은 것이 구세주탑과 삼위일체탑이다.

붉은 광장에서 크레믈린을 향할 때 정면으로 레닌묘가 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의 최고의 칭예로써 붉은 광장은 물론 러시아 전체에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레닌은 사후에 미이라로 만들어져 이곳 묘소의 화강암 석실에 보관되었었다.

붉은 광장 우측에 제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루코프 장군의 기념비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국립 역사 박물관과 연하여 부활의 문이 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굽이에 들면 모퉁이 병기창탑을 돌아 일명 '꺼지지 않는 불'로 더 잘 알려진 무명용사의 묘가 나온다. 여

기에 쓰여있으며 '당신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슴 가슴에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비가 조금 내렸다. 이미 사흘 전에 세계의 정상들이 바친 조화가 꺼지지 않는 불빛 위에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번 여행 중에 새삼 인지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이 크레믈린궁이라는 사실이었다. 푸틴은 러시아 비밀경찰인 KGB의 국장출신답게 그가 거쳐하는 곳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그리고 불시에 집무실로 이용되는 곳이 크레믈린 상원건물이라고 한다. 거대 러시아의 명운을 조타하는 푸틴 대통령은 재선가도에도 진입했으나 그는 여전히 옛 공산주의 시절처럼 비밀스런 부분을 간직하고 있다.

### '레닌언덕'도 숨이 차는 모스크바 참새들

꿀벌견 여성탑을 지나 삼위일체탑, 물올림탑, 성모수태탑, 비밀탑, 제1, 제2무명탑, 뽀뜨르탑, 모스크바강탑, 헬레나탑, 경종탑, 황제의탑, 구세주탑 등이 크레믈린의 거대한 성벽을 옹위하고 있어 건축학적 미감 또한 두드러진다.

붉은 광장을 벗어나 시가지를 들어섰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전쟁과 종교가 혼성 이중주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토록 흥왕하던 종교는 전쟁의 회오리에 수난을 겪다가 어느 만큼의 세월이 흐른 후 종교와 전쟁은 다시금 양상불을 이루며 러시아를 받쳐 든 두 개의 거대한 햇불로 타오르고 있다.

모스크바강을 가로 질러 2차세계대전 승전기념탑을 찾아가는 길 정면에 나폴레옹을 이기고 세웠다는 개선문

이 보였다. 차를 멈추고 멩텅구리 계단을 지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크티부쵸 장군상과 만났다. 전승탑은 141.8m이고 물줄기 뿜어내는 분수는 1418개였다. 분수의 숫자는 전쟁일수를 의미한다고 했다. 삼각면탑에 새겨진 1941~5년까지의 숫자적 표시, 독일로 상징된 토막난 드래곤의 형상, 부채꼴로 되어있는 전쟁기념관의 양끝에 승리의 여신이 불어대는 천사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 기념관은 1995년에 완공했으니 10년쯤 지난 것이지만 준공식 때는 일본만 불참했다 한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 전투, 폴란드전쟁 등의 승리를 기념하는 3명의 용사상을 지나 레닌 언덕을 향했다. 러시아는 위낙에 산이 없는 나라라 언덕의 의미는 특별했다. 자작나무, 소나무 등이 풍치를 이룬 도로를 따라 대사관촌을 거치고 부동자세로 기립하고 있는 모스크바대학을 굽어 돌았다. 모스크바 대학은 1775년에 설립되었으나 지금의 건물은 신축한 지 60년쯤 된 것이다. 200명의 한국학생을 포함하여 규모가 3,200명 정도라 하였다. 우리나라처럼 예술대학은 없고 자국학생에게 수업료가 없다 한다. 러시아의 체제변화 이후 북한 학생들만 모두 철수했다는 사실 또한 변하고 있는 세상의 한 모습이었다.

레닌 언덕에 이르렀다. 이 언덕은 원래는 '참새의 언덕'으로 통하던 곳이다. 이 나라 참새들은 이 높이도 숨이 차서 한차례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의미. 모스크바인들은 '우리도 레닌 언덕이 있다' 할 만큼 대단한 자부심이 숨쉬는 곳이다. 때마침 결혼한 몇쌍의 신혼부부들이 셔터누르기에 바빴으나 우리는 「남의 일」처럼 언덕 아래 펼쳐진 배부른 지평선 형상의 모스크바를 조망할 수 있었다. 정면으로 레닌 주경기장 외에 좌

우측에 모스크바강과 올림픽 때 시설했다는 스키 활강대가 녹색 시가지에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러시아에는 대충 눈에 잡히는 세가지 풍경이 있었다. 하나는 결혼한 신부도 촬영하다 말고 담배 피우더라는 것,

둘은 대책없이 뚱뚱한 비만형 여성이 많다는 것, 셋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읽히지 않았다는 것.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는 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표정없는 러시아인은 사귄수록 깊은 정과 믿음을 준다는 것이 가이드의 설명이었다.

불 것은 많고 시간은 짧고, 주마간산식 여행은 속도를 더해 갔다. 구 소련 시절 최초의 우주인으로 인공위성에 올랐던 '우리가가린'의 상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처럼 다리를 늘이고 서 있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19세기 사실주의 화가인 레풍의 기념공원과 18세기의 모습이 잘 보존된 호수, 숲, 다리, 마을 등을 살필 수 있었다.

러시아의 돛식 지붕 감상법, 이 나라는 동이 금보다 비쌀 만큼 금이 흔하다. 또한 황제나 귀족들이 신분 과시의 목적으로 순금 혹은 도금한 돛식 지붕을 선호했을 것이라는 것.

보드카 마시는 법, 호흡을 정지한 뒤 마시고 상대의 옷이나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면 훨씬 수월하게 견딜 수 있다는 것.

러시아에서 말하지 말라는 3가지가 있다. 40도 이하의 술(보드카 때문), 40Km 이내의 거리. (그만큼 걷는다는 뜻), 영하 40도 이하의 추위 (그만큼 춥다는 뜻) 러시아에서 이틀밤을 자고 아침 산책에 나섰다. 아직

청소전이라 여기저기 쓰레기가 너브러져 있었다. 지하철 역사를 둘러보고 재량있는(?) 힘있는 자들의 돈빼 먹는 풍토가 감잡혔다. 까마귀 날으는 숲속에 들자 경찰 제복의 젊은이 둘이서 검문을 해왔다. 여권을 쫓더니 살피면서 연신 술 마실 돈을 요구했다. 별일은 없었지만 불쾌한 체험의 한 대목이었다.

### 상공을 떠가면 구름도 아름다워

조반을 마치고 제2의 코스인 성뻘째르부르그로 향했다. 거리상으로 750Km가 넘건만 비행기로는 1시간 반의 거리. 러시아는 광활한 나라였다. 그러나 상대와 맞부딪쳐서 이긴 적은 없고 머리를 써서 이겼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음전쟁인데 이 전쟁의 영웅 레스키 장군은 말과 군대를 호수로 끌어들이 적군 모두 수장시켜 버렸다 러시아인의 민족성은 끈기가 있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끝까지 단결심과 협동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이 나라 영토보존의 바탕 힘이 되었을 것이다.

러시아인은 예술적 성향이 강하다. 거지 할머니도 오페라나 발레를 보러 갈 때는 정장차림 품격 높은 시간을 향수한다. 러시아의 국민성은 진취적이나 편협한 사실주의에 고착되어있다. 이유는 아직 혁명적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 그리 보면 러시아만큼 역사, 자연, 문화가 혼연일체가 되어 거대한 생명체로 숨쉬고 있는 대륙도 드물 것 같았다.

국내 항공편이건만 허리띠까지 벗어서 검문을 받았다. 여기에다 비행기가 날으는 동안은 또 다른 자리에서 여행용 가방이 살살이 검색되었다. 기분 나쁜 일이다. 우리는 낯선 곳에 대한 설레임으로 시간 시간이 행복

감으로 밀물져 왔다. 참 맑고 푸근한 날씨에 상공을 떠가던 구름마저 더 없이 아름다웠다. 차로 지나는 초원을 보면서 이 상쾌한 공기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 공기 통조림 원료가 모두 여기에 모여있다 했더니 좌중이 웃었다. 뻘째르부르그도 500만이 넘는 대도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고향이라는데 맑은 날씨인 데도 어딘가 음산하고 쓸쓸한 닥터 지바고적 정서가 감서려 있었다.

1703년에 터잡기 시작한 성뻘째르부르그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도 경주와 함도 부산을 합성한 도시쯤 된다면 이해가 쉽겠다. ‘뻘째르’는 ‘베드로’, ‘피터’, ‘뵘트르’ 등과 동일어이다. 그리고 양력으로 5월 27일이 이 도시의 생일이다. 스웨덴과의 전쟁이 계기가 되어 1770년에 수도를 이곳으로 옮겨 200년을 넘게 지속되었기에 러시아에서 문화유산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했다. 이곳에 와서도 밤의 길이는 토끼꼬리처럼 짧았다. 낮이 가장 긴 하지가 되면 아예 밤은 달아나 버려 24시간을 온통 독서하고 산책하는 등 평상생활이 가능하다 한다.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 여름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완전 백야 뒤에는 완전 흑주 또한 숨쉬고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이치랄까. 이 도시에 전쟁의 의미는 컸다. 승리의 광장에서 시내 중심부까지는 9950m. 지금도 도시 이름은 ‘레닌 그라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레닌은 청년시절 똑똑한 1등 청년이었을 뿐 사상가도 혁명가도 아니었다. 그의 형 ‘다샤’의 죽음 뒤에 형의 탐독서들을 읽고 러시아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킬 이상을 키웠다. 농민을 상징하는 ‘낫’, 노동자를 상징하는 ‘망치’를 징표삼고 158cm의 작달막한 코트차림

에 공장근로자의 베레모를 쓴 레닌은 1924년 혁명을 시작으로 하층민들의 대변자가 되었다. 1991년 사회주의의 붕괴로 국가명칭, 도시명칭이 바뀌면서 상트 삐째르부르그가 되었다. 레바강이 이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시내 어디를 가나 물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거리는 단독주택 한 채 없는 완전 주상복합 건물들로 정비되어 자꾸만 상해 임시정부청사 거리가 연상되었다.

우리는 이 도시 관광의 첫번째 코스로 에르미타쥐 박물관을 찾았다. '에르미타쥐'는 프랑스어인데 '휴식공간', '은둔지'를 의미한다. 세계 3대 박물관을 자부하는 이곳은 황제 개인 박물관 시절은 이미 오래고 이제는 매년 수천만명의 구경꾼이 다녀가는 자긍심 높은 영혼발현의 공간인듯 하다. 이 박물관의 명예는 훌륭한 건축양식, 세계문화예술의 화려한 컬렉션, 그리고 상트 삐째르부르그와 관련한 황제 주택의 탄생과 발전, 쇠망 등의 과거사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에르미타쥐의 기원은 러시아 황제들의 창조적이고 계몽적인 사업에 터잡고 있다. 이 건물 극장 자리에 세워



진 '뵘트르 1세'의 겨울 궁전은 강변을 따라 계속되는 궁전 건축의 효시가 된다. 그리고 에르미타쥐 극장은 오늘날 박물관을 이루고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삐째르부르그의 중심부에 150여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이루어낸 건축 앙상블의 극치이다. 에르미타쥐 콤플렉스에서 러시아의 역사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투영하



고 있었다. 이들 속에 녹아있는 인간정신은 역사와 유물이 하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 예쁜 가슴 노출된 '리타의 마리아'

에르미타쥐 박물관 주변의 가로수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연한 떡잎이던 수목들은 이곳에선 한기 때문인지 이직도 동면에 빠져 있었다. 네바강은 우리네 한강처럼 대단한 수

량으로 흐르고 있었다. 유람선이 제 나라 민속공연까지 싣고 다닌다니 한번쯤 침이 삼켜졌다.

겨울 궁전에는 다양한 시대의 기억들이 간직되어 있다. 궁전을 지금의 박물관으로 개축한 것은 1920년부터 30년간의 피땀을 바친 건축가 시프코브이의 공이 크다. 진열작품들과의 기묘한 조화, 외견에 따른 거주공간의 분위기는 19세기 후기 건축 스타일에 힘입었지만 자세히 보면 바로크적인 맛이 크게 가미되어 있다.

천정에는 18세기 이탈리아 화가 디치아니의 작품이 1839년에 이곳으로 옮겨져, 진실, 정의, 위엄, 지혜, 공정, 풍요를 상징하는 조각상들과 킴퍼지션을 이루고 있다.

머리손질이 단정한 나무들 사이로 초봄의 하늘이 빈적막처럼 비쳐 들었다. 제정 러시아가 붕괴될 때까지 니콜라이Ⅱ세가 겨울처소로 사용했던 이 궁전에는 250만점의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수치상으로 이들 유물들은 1분에 1작품씩 하루에 8시간 감상하기로 치면 놀라지 마시라! 무려 15년을 볼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이 박물관의 마지막 주인인 니콜라이Ⅱ세는 불운했다. 1917년 10월 25일 오르라호라는 선박에서 포를 쏘아 혁명을 알리고 왕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8년에 가족과 함께 총살에 처해진다. 그 후 궁전은 모두 미술관으로 바뀌고 겨울·봄궁전, 신·구 극장, 왕실 전용 극장 등 5개 건물로 분류된다.

원형천정에는 말소리가 울리는 공명공간도 있었다. 흡연실, 서재, 유아방 등이 차례로 열리고 벽면을 장식한 양탄자는 방한용을 겸하고 지방제후들의 조공품이라

경쟁적으로 화려하다. 진열품 대부분은 리얼리즘을 담고 있었다. 물을 부어 습도조절에 사용된 대형원반화병 하나만 봐도 가진 것이 적은 우리는 주눅들기에 충분했다. 갤러리는 ‘게오르기관(대옥좌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위풍당당한 건축양식들의 심포니는 절정에 닿아있다. 에카테리나 2세의 통치기에 설계한 ‘신옥좌관’은 엄격한 클래식 양식으로 지어졌다. 에카테리나는 무능하고 내성적인 남편 피터3세를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 백작, 공작, 자작 등 여러 귀족들과 난행을 일삼은 에카테리나2세는 따블린스키 궁전에서 하루에 한번씩 소리를 내는 황금공작 시계를 제작하기도 했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컬렉션은 대부분 에카테리나 통치기에 확보된 것들이다. 네델란드와 플랑드르파의 수준급 작품들이 수집되고 렘브란트나 루벤스, 반 아이크 등의 작품들이 유입되었다. ‘완벽한 작품은 서둘러 볼 것이 아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니콜라 푸생은 프랑스 고전주의의 창시자였다. 농민 풍속화를 즐겨 그린 루이 레넨의 <우유파는 여자의 가정>은 검소하나 고결한 모습의 풍속화였다.

전쟁 갤러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335명의 장군 초상화가 종군기록 화가에 의해 제작전시되었다. 야외에 나가 풍경화적 배경에 담겨진 장군들의 초상화는 사실감 넘치는 걸작들이었다.

백마탄 알렉산더 1세의 초상은 인상적이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이 5점이나 소장되어 있고 특히 다빈치의 <베노아의 마리아>는 투시도법으로 제작된 걸작이었다.

고흐, 고갱, 세잔, 마네, 르노아르 등 후기 인상파 화

가들이 즐비하고 야수파 마티스의 <춤>은 청녹색 화면 위에 펼쳐진 무희들의 춤동작이 인상적이다. 입체파 피카소의 작품이 26점이나 전시된 것 또한 놀라웠다. 라파엘 화랑에는 모사품이기는 하나 성경의 창세기 부터 최후의 만찬까지가 일관된 흐름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다빈치의 <리타의 마리아>는 아기 예수에게 수유하는 성모 마리아의 예쁜 가슴이 노출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외경성에 비추어 젖가슴을 드러낸 성모 마리아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 성모 마리아를 인간적 미감으로 드러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 기원전 10세기경의 미아라가 불쌍해

루벤스방에는 독일의 지방 출신인 이 화가의 후기작이 전시되어 있었다. 17세기의 빛이나 혼의 화가로 평가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단연 압권이다.

인기투표로도 90% 이상을 득표한다는 이 작품의 사연은 이렇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장남은 아버지 뜻에 따르는 모범생이었으나 둘째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지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준 후 둘째는 그 재산을 일거에 탕진하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돼지우리 등을 치우며 연명하다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같은 아들을 아버지는 탓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새옷 새신발을 갈아입히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의 자전적 스토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렘브란트는 창작적 재능 이외에는 모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 고독과 실의 속에 자신을 묻

어두고 살았다. 요컨대 <돌아온 탕자>를 관통하고 있는 사랑, 고통, 이별의 감정들이 렘브란트의 영혼속에 작열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관객들에게 욕된 몸채를 드러내고 있는 기원전 10세기 경 '미이라'가 붙쌍했다. 양파처럼 여러 겹 동일형상을 포개서 만든 '마트로시까'라는 인형이 인상적이었다. 마트로시카는 다산 기원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스토리가 잘 연결된 것이 좋고 수공, 금도금 등이 작품의 질을 결정한다 한다.

이삭 광장은 네바강 좌측 강변에 위치하며 상트 페테르부르크 초기의 건물들이 들어선 지역이다. 이 광장의 구도적 요점은 이삭 대성당이다. 달마찌야 출신의 성 이삭 기우스에서 명칭이 유래했고 이삭 광장은 국가 제일의 성전으로 가는 '성대한 길'이라는 의미가 배여 있다. 환조, 부조 등으로 장엄한 성경 내용을 담고 있는 조각장식들은 그 유기성에 있어 찬탈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 대성당은 당대 종합 예술이 달성한 최고의 성과로 평가된다.

페테르부르크 중심지를 가로질러 유명한 넵스키대로가 있다. 1710년 두개의 도로가 놓이는데 구해군성에



서 시작하는 것과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수도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후에 단선 도로로 합류하면서 1738년 '넵스키 대로'라는 명칭을 얻는다.

이 대로의 총길이는 4.5km에 너비는 25-60m. 대로변을 장식하는 알렉산드르 극장(푸쉬킨 극장)이 있다. 1873년에 극장 앞 공원에 예카테리나 2세의 기념비가 가트베이의 조각으로 세워졌다. 그녀의 형상 밑에는 자신의 통치기를 장식했던 주요인물들이 갖가지 고뇌하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넵스키 대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지류들 중 가장 긴 것이며 폰탄까 강과 교차한다.

이삭 광장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마리아 궁전을 거쳐 도시 고공에 떠있는 까잔대성당을 찾았다. 이 성당의 십자가는 거의 64m 높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반 뇌제의 군대가 까잔을 습격했을 때 획득된 성모의 형상을 기념하는 이 성당은 1710년 페테르부르크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도와 주제면에서 이와 유사한 성상을 모스크바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당시 바벨 1세는 성베드로 성당을 모방한 까잔 석조 대성당을 넵스키 대로에 세울 것을 명령하였다. 6개의 원주로 이루어진 이 성당의 중앙부위는 주랑(柱廊)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주랑에는 플로렌치아 침례교회의 '천국문'을 묘사한 청동의 문이 있다. 또한 이 대성당에는 원수 꼬뚜쵸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페테르부르크시를 몇 가지 방향에서 보면 아홉개의 지붕이 꽃송이를 형상한 그리스도 부활 사원을 볼 수 있다. 이 사원이 세워진 곳은 그리도예도프 운하변 도로에 위치하며 1881년 3월 1일 테러범 이그나찌에 의해

알렉산드르 2세가 사망한 곳이다. 황제는 피폭후 겨울 궁전에서 숨을 거둔다. 황제의 통치 26년을 기리고 황제 살해를 속죄하기 위하여 세워진 탓에 ‘피의 구원’이라는 속칭을 얻었다.

### 푸쉬킨의 표현에는 인생의 온기가 배어있어

네바강 우측 강변에 3층짜리 미술 아카데미가 웅대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다. 또한 예술광장을 지나며 푸쉬킨 동상을 만난다. 푸쉬킨은 러시아어에 문학적 품격을 높인 최고의 인물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행복의 날은 오리니...”을 창작한 푸쉬킨의 표현에는 인생을 성찰하는 온기가 배어 있다. 이 시인의 아내는 칸차로바, 황제까지도 반할 정도로 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허나 그리 현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칸차로바를 연모하던 공작 단테스는 ‘땡대신 땡’으로 그녀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고 칸차로바와의 사랑에 빠진 것. 이를 보다 못한 다혈질의 푸쉬킨이 동서 단테스와 합법적 결투를 벌이고 그 충격으로 죽었다. 이 때가 푸쉬킨의 나이 38세. 푸쉬킨이여, 그대는 ‘신은 심장에서 온다’ 더니 그 심장을 가진 인간에게 넘어졌구려. 아이러니하지만 ‘푸시키’는 ‘대포’의 의미이고 푸쉬킨은 아내와 처음 결혼할 때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남편의 사망 이후 칸차로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다. 모스크바에도 고리키 극장의 오른쪽 산책로에 푸쉬킨 동상이 있는데 아내와 단란한 한때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빠쩌르부르그에는 216개의 박물관이 있다 한다. 이중 일반적 박물관이 150여개이며 나머지는 황실이나 사원에 딸린 특별한 기능의 박물관이다. 또한 바가노바 발레스쿨은 최고의 무용명문교이다. 이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때 외조모의 혈통과 신체조건까지를 테스트한다는 것. 가이더의 설명은 더 이어졌다. 러시아인들이 한국인과 차이난 점은 역사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이라 하였다. 러시아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주쳐도 자국의 역사에 대해 빠삭하고 자신의 정확한 판단력을 결들일 수 있다 한다.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제 잘난 맛에 이 머나먼 러시아까지 날아왔건만 정작 우리네의 영혼과 정신은 속빈 강정이나 아닌지? 이 나라에서 지하철 표지는 Metro의 약자인 ‘M’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평균수명은 남자 59세에 여자는 72세이며 남자의 단명은 잦은 내외전이 가장 큰 원인이라 했다. 멀리 금색 철탑을 세운 피터폴 요새가 한눈에 들어 왔다.

빠쩌르부르그에는 365개의 다리가 놓여있다. 이중 14개가 네바강을 가로지르며 모두가 개폐식이어서 12시 55분부터 새벽 5시까지 거대한 가슴처럼 열리고 닫힌



재건축에 들어갔어야 할 건물들이 버젓이 가슴을 펴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어린아이까지도 하루 2번 이상은 산책한다는 러시아. 여름은 30℃를 오르지만 겨울 또한 반대로 영하 30℃쯤 내린다고 했다. 중심가에는 없던 전봇대가 도시 변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문득 푸틴 대통령의 지도자론이 나왔다. 푸틴은 주도면밀하지만 문예에도 조예가 깊다했다.

다. 옛날 부산의 영도 다리의 낭만이 한 순간에 아른거렸다. 저녁시간에 호텔 6층 홀에서 생맥주 파티가 있었다. 저마다 열악해지는 문화원 환경에 대해 열띤 토론을 주고 받았다.

아침에 기상하고 새삼 긴 내의를 챙겨 입었다. 견딜만 했지만 한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호텔 주변을 걷다가 개나리가 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러시아는 지금 제국주의 유산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대부분 200~300년은 됴직한 석조건물과 얼마간 흐린 날씨와 사람들의 굳은 표정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불현듯 해양성 바람을 느끼며 사회주의와 독재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독재' 시절의 유산으로 밥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아닐까?

여름궁전 분수공원 가는 길에 스탈린 동상이 지나쳤다.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에 녹지가 계속되었다. 외곽쯤 된다 싶는데 주말 농장격인 '다노'가 옹기종기 군집성 짐승들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한국같은면

공원 개념의 초원을 지나 1905년에 지었다는 피터폴 성당을 보았다. 러시아인들의 평일 미사장면을 보았고 성호 긋는 방법이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어서 우리와 반대되는 것을 알았다. 재래시장으로 옮겨서 또다른 풍경을 접했다.

### 여름 궁전의 분수들 찬탄이고 감격!

여름궁전 분수공원은 전망이 트인 잘 가꾸어진 곳에 일자형으로 흩어져 있었다. M자형의 겨울 궁전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여름 궁전은 공원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러시아 황제들이 여름 한철 이곳에서 기거했었다. 여름 궁전의 미적 수려함은 '아랫 공원'에 숨쉬고 있었다. 독특한 폭포와 강한 물줄기의 분수들, 소규모 궁전인 '몽뵈레지르'와 '마를리', '에르미타쥐' 라는 정자 등등 ... 핀란드 해변에 위치한 여름 궁전은 러시아의 승리를 담았으며 이 공원의 착상자는

뵘프르 1세였다.

바디곤 언덕에서 흘러보낸, 낙차를 이용한 위치에너지로 저 변화무쌍한 분수들이 치솟는다는 것은 하나의 찬탄이고 감격이었다. ‘꽃잎이 피어날때 오셨어야’를 말하는 가이더의 설명속에는 이른 계절에 대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아랫공원의 설계자는 미하일 고르로프, 압권은 단연 ‘삼손’ 분수였다. 삼손이 호랑이 아가리를 열어 제치자 5톤 무게의 물줄기가 당시 제왕들의 권능의 상징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일행중에 우리 정말 ‘분수동네에 왔네’ 라는 말이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부속건물들마다 먼지가 쌓여 부처님 뒷전을 보는 것 같았다. 삼지창의 포세이돈도 휴식중이었고 새로 도색한 건물들, 아니 수목들 사이로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음악이 흐르고 쌍둥이 분수, 로마 분수를 뒤로 한채 폭포계단을 내려섰다.

‘아리랑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군사 기술 아카데미 앞을 지났을때 발틱 기차역이 보였다. 벽면에 요란한 표기가 있어 물었더니 벤젤리트의 원소주기율표였다. 영웅이 없는 시대에 러시아에는 여직 여러 영웅들이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는 버스에 한국의 ‘설령탕·도시락’을 선전한 라면 문구가 보였다. 러시아에서의 한국 기업의 인지도는 대단했다.

LG가 첫째, 뒤이어 삼성, 현대 등등 ... 행상에게서 일행 몇 사람이 털모자를 샀다. 이를 지켜본 운전기사 왈 ‘털모자 사신 분에겐 에어컨 안 틀어준다’는 것. 얼굴은 험한데 대단한 조크였다.

구 해군성을 찾았다. 발틱해담가 처음 출범한 역사적인 공간이다. 뻘째르부르그에선 ‘배가 있으면 해군청,

십자가를 보면 사원’ 이라고 했다. 그만큼 이들 시설물이 많다는 표현이리라.

궁전다리를 지나는 길에 길게 네바강이 누워 있었다. 이 강의 길이는 740Km. 강변을 따라 18~9세기 건축물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내고 있다. ‘북방의 수도’라는 표현이 제격인 상트뻘째르부르그의 주요 광장들이 네바강쪽으로 머리를 두르고 있다. 강의 하상에서부터 강변까지를 화강암으로 축조했으며 나무터는 엑조티즘(exoticism)적 조각들로 아름다웠다. 네바강은 세계적인 운송용 수로이다. 그리고 발틱해로부터 여객선과 상선들이 줄지어 정박한다. 도시를 굽이치는 여러 개의 수로가 교통을 이어가고 속속 금속제 상설교가 가로 놓이고 있다.

네바강엔 8개의 개폐교가 있다. 교량들은 저마다 불빛을 받아 위엄있고 장대했다.

차에서 내려 스프링크스가 웅크리고 있는 도선장을 살폈다. 아기곰의 주둥이에 그물망을 씌우고 한 시민이 그 곰과 장난치고 있었다. 측면에는 지렁이, 박쥐에서부터 코끼리 사자까지 무려 700만점을 소장한 동물학박물관이 있었고 18세기 무렵부터 전차나 병기에서 최신식 무기까지 진열된 전쟁박물관이 한 눈에 들어왔다.

초록지붕 붉은 벽에 둘러싸인 피터대제 오두막에 이르렀다. 1748년 5월 25일 황제에 오른 피터대제, 그는 어려서 서자 출신으로 성장했다. 인간세상의 신산고초를 겪으며 꿈을 키웠기에 궁전밖 외인촌에 살면서도 그릇이 큰 제왕에 오를 수 있었다. ‘대제오두막’ 주변은 1907년 러일 전쟁 당시 우르라 순양함으로 참전하였고 1917년 겨울 궁전에서 152mm의 포를 터뜨려 볼셰비키 혁명을 처음 알렸던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 영

화 절반이 뻘째르부르크에서 촬영하는데 그 대부분이 이곳을 담는다던가?

피터폴 베드로 바오르 성당 앞에 섰다. 뻘째르부르크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건물, 122.5m의 높이에서 이곳이 지상을 응시하는 천사상, 피터대제에서 1917년에 레닌이 혁명에 성공하고 1918년에 공개처형된 니콜라이 II 세와 동반 희생된 10명이 이 성당에 함께 안치되어 있다. 그래서 일명 ‘무덤이 있는 성당’이다. 낙뢰에 노출된 십자가가 두 세차례 번개를 맞고 크게 훼손되었다. 어렵게 십자가를 복원하고 피뢰침을 부착했을 때 황제는 이 일에 성공한 목수에게 후하게 사례하고 싶었다. 목수는 대단한 술꾼이었다. 그는 소원을 묻는 황제에게 간섭받지 않고 술을 마시도록 금주령을 해제해 달라고 했다. 그후 목수는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취했을 때는 그 표시로 손가락으로 목을 치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이 표시가 술취했다는 시늉이라는 것. 뒤에 조폐국이 자리잡고 있었다.

### 낭만 발레 ‘지젤’은 발레의 ‘햄릿’

넵스키문은 죽음의 문이다. 레닌 혁명 당시에는 사형 집행장의 통로로 쓰였던 곳인데 1752년부터 1975년까지 100년 적게는 30~40년에 한차례씩 큰 홍수가 터져 그때마다 죄수들이 방면되기도 했다.

뻘째르부르크는 러시아 예술의 중심지다. 이 도시가 배출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만도 7명에 이른다.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다는 국립음악원도 뻘째르부르크에 있다.

‘해가 귀한 나라라 해만 보면 벗어제끼다’는 우스개

소리를 들으며 ‘거리의 악사’ 들을 만났다. 이들은 관광객들의 국적을 귀신같이 맞춰내고 그 나라 노래를 연주하여 팁을 받는다. 김정색 정장차림의 남자들은 중국인, 키가 작고 한국·중국 중간쯤의 센님 스타일은 일본인, 이에 반해 분홍, 초록, 연두 등 골프웨어 차림은 100% 한국인이라는 것. 한국인은 팁이 많아 선구자, 애국가, 아리랑 등 곡목도 다량 준비되어 있다. 가이더의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뻘째르부르크엔 태풍이나 황사는 없으나 대신 십자가가 떨어질 정도의 ‘돌풍’이 있다. 스먼리 성당의 대형 십자가도 돌풍에 떨어졌었다.

저녁식사를 돼지삼겹살에 보드카를 곁들였다.

예정대로 러시아 정통발레 <지젤>를 보기 위해 마린스키극장에 착석한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여유가 생겨 공연장 이모저모를 살폈다. 무대 세팅은 사실주의적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중앙에 쌍두 독수리가 위엄 있게 위치해 있고 좌우 벽면에는 아람드리 대리석 기둥을 세우고 혹은 여의주를 혹은 수금켜는 비너스 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뮤즈를 부르는 연주단의 음보정리가 요란했다. 15명의 관현악단과 28명의 취주악단이 공연공간을 달구면서 지휘자가 수석 연주자와 악수를 교환하고 막이 열렸다.

하인리히의 시를 테오필 고티에르가 재구성한 <지젤>은 아돌프 아당이 작곡하였다. 전 2막으로 구성된 지젤은 초연부터 흥행과 명성을 동시에 얻은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낭만 발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발레리나에게 무용가로써의 기량과 배우로써의 연기력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흔히 발레의 햄릿으로 불리기도 한다. 초연 때의 안무본이 남아있지 않아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1막에서는 사랑에 빠진 순진한 처녀가 배신당한 아픔, 죽음까지의 감정변화를 표현해야하는 인간적인 모습과 죽은 성령(일리)으로 나타나 사랑하는 이를 끝까지 지킨다는 완전히 반전된 분위기를 요구하는 2막의 구성은 어느 발레단에서나 변함없이 공연되어지고 있다.

무대를 종횡으로 누비는 여자 주인공은 체구는 작지만 무대를 가지고 놀듯 자유자재로 춤사위를 만들었다. 타고난 몸매에 유연한 연기력, 갈등과 대결이 조였다 풀리기를 여러 차례, 튕겨날듯한 격렬한 음악과 춤동작이 끝없는 방황과 환상을 만들고 만들었다.

## 외국여행, 코빼고 귀빼고 나면 남는게 없다?

관람을 마친후 극장 밖엔 밤 10시인 데도 해가 노을 속에 빛 고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상품으로써 <지젤>은 완벽한 예술적 권위를 갖추고 있었다. 예술품도 관객들을 향할 때는 제반 조건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국가적 배경이나 혈통 등의 프리미엄만 내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지젤은 3명의 남자 무용수를 포함하여 20여명의 무용수가 열연하는 무대였다. 여자 무용수들은 체격조건부터가 규격품처럼 균일했다. 조금 잔인하게 말한다면 사육해서 길러낸 체격에 피나는 훈련으로 재능을 꽃피게 하는 것 같았다. 혈통이나 재능을 판가르기 위해 외조모까지 테스트하고 선발한다는 엄격성 하나



만으로도 우리의 상상은 충분히 개연적이다. 확실히 까다로움 뒤에 숨쉬고 있는 프로적 승부 근성이 러시아 발레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5월 17일, 여전히 맑은 날씨. 아침식사를 마치고 시내 관광에 나섰다. 공항으로 향할 시간까지는 3시간쯤. 러시아 정교성당에 갔다. 빼짜르부르그시에서 다른 성당들은 사회주의로 넘어오면서 모두 그 용도가 바뀌었다. 어떤 것은 목욕탕이 되고 어떤 것은 수영장이나 식당이 되기도 했다. 이 바람에 사제들도 추방되었으나 탄압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다시 배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정교 성당만은 예외. 1948년 니콜라이에 의해 준공된 이 성당은 러시아의 1대 종교인 정교 봉헌의 성소여서 정치적 탄압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천정은 낮고 여느 성당과 달리 층수가 있었다. 양쪽에 촛불이 켜지고 질서 없이 7~8명의 신자들이 기립 자세로 평일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빼짜르부르그시의 4대 공연장중 알렉산드리아 극장을 찾았다. 이 도시에는 이 극장 외에도 마린스키 극장, 에르미타쥬 극장, 무스르기스키 극장 등이 더 있는데

이들 극장은 전 러시아뿐이 아닌 서유럽 등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발레전용 극장들이다. 돈키호테, 호도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등으로 더 잘 알려진 이들 극장은 백야 무렵이 되면 ‘백야축제’를 성대하게 차려내기도 한다.

도시적 성격으로 봐서 모스크바가 정통쪽에 가깝다면 뻘째르부르그는 기교적으로 훨씬 더 능란하다. 러시아 발레는 바가노바가 최상석에 놓인다. 바가노바는 발레의 동작, 자세 등을 정립했고 이 방법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마린스키 극장에는 게르기에프가 총감독이다. 그는 발레극장장이며 손꼽히는 지휘자로 중요한 연주를 도맡아왔다. 허나 그의 개인평판은 낙제점이며 게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게르기에프의 호적수로는 미국 볼티모어 상임지휘자인 유리까느리프를 꼽는다. 음악 외에도 다른 전공을 가진 유리까느리프는 주위 동료의 대단한 추앙을 받고 있다.

마린스키극장과와의 관련으로 루스키쿠르사코프 음악학교를 들 수 있다. 루스키쿠르사코프는 유명작곡가인데 그의 명성을 따서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미술·음악·발레 등 독립된 형태의 전문학교로 이 학교의 초대학장은 루빈스키였다.

이번 여행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생가를 놓친 것이 아쉽다. 1992년도에 다녀온 조남식(趙南植) 영광문화원장은 톨스토이의 생가는 개·보수없이 옛날 옛집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나무 한 그루가 톨스토이 생전의 생가를 지키고 있다 한다.

공항시간을 염두에 두고 이른 점심을 먹었다. 오늘밤은 기내 1박이다. 비행기타고 다니는 외국여행이라는

게 왕왕 외화내빈인 경우가 다반사다. 정오도 되기 전에 점심상을 받았건만 비행기에 오르는 시간은 10시 반. 물론 그 사이에 다시 모스크바비행기를 타야하고 거기에서 시간에 맞춰 다음 비행기를 대비해야 하고. 그래서 여행기간 전체를 두고 순수관광시간은 당나귀 머리처럼 코빼고 귀빼고 나면 남는게 없다. 허전해서 뒤돌아보고 빈손이어서 뒤돌아보는 게 여행의 생리이다. 이를 두고 앙드레 지드는 “여행과 질병만이 자아를 돌이키게 해준다.”했던가. 여행길에 오르지 않고 크게 아파보지 않고 어찌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살펴봤다 할 수 있을까.

### 더 많은 탐색이 비가 되어 내릴 때 즈음

자투리 시간을 내어 모스크바 할인마트를 찾았다. 꼭 무엇을 사겠다는 목적 이전에 서민들의 일상을 감잡기 위한 코스였다. 할인마트는 덴마크 직영이었고 백화점식 상품배열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다. 일행은 가이더의 뒤만 밟으며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주마간산식 쇼핑을 했다. 우리네 마트 풍경보다는 많이 한산해 보였다.

이제는 더 물릴 시간없이 공항으로 달렸다. 공항까지는 지근의 거리인 데도 차가 엄청 밀렸다. 한국에서 우리 일행이 온 줄을 어찌 알았는지 너도나도 차를 몰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이 분명했다. 비행기에만 오르면 내일 오전 11시에 한국땅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다섯밤 자고 헤매 다닌 러시아가 퍽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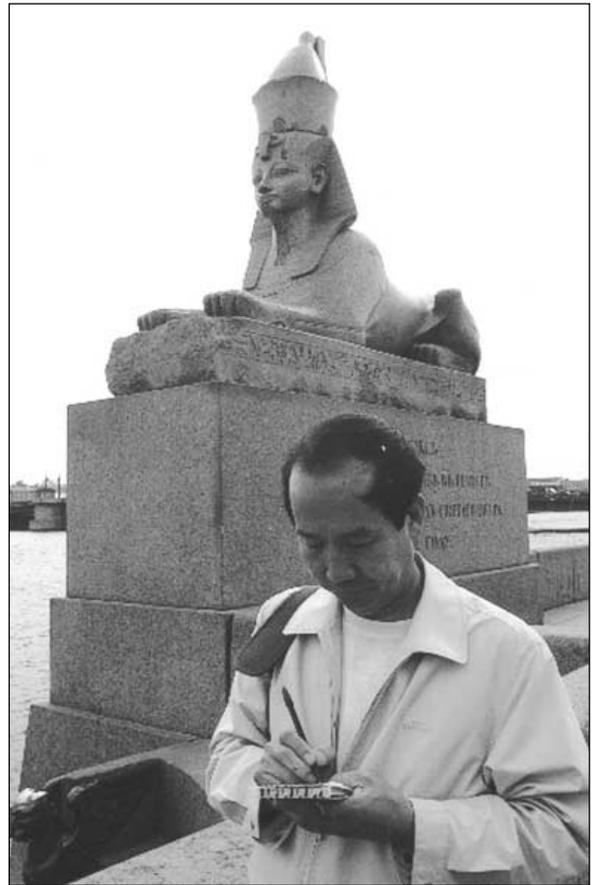
아리송하게 느껴졌다. 부러울만큼 채워졌나 하면 눈뜨나 감으나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밀물져 왔다. 러시아에서 불거리는 제국주의하의 유물이었다.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 광활한 영토지키기가 장난이 아니게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내외적으로 전쟁이 잦았던 것일까. 가진 자는 엄청 누리고 빈한한 자는 손가락이나 빠는 세상사는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는 많이 식어 있었다. 자본주의 도입이 사회주의적 관습과 자주 충돌하겠지만 차츰 개인주의 마력에 길들여지고 봄바람 부는 낙원위에 집 짓고 싶으리라.

다시금 떠오르는 문장 하나! ‘러시아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를 일이다. 7개월의 동토가 러시아인들의 표정을 만들었다면 어찌 흘러내릴 눈물이 남아 있으랴. 봄바람이 돌아나는 러시아는 수목들이 감추어둔 엽맥처럼 희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견고한 석조건물이 연도의 인파처럼 줄지어선 러시아! 전제군주 시절과 사회주의 혁명 시절 모두 눈물을 만들지 못한 세월이었다. 그러니 현실에서 사실주의를 향한 일로매진만 유일한 통로였으리라.

솔직히 필자는 러시아의 사실주의에 숨이 막혔다. 가도가도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융통성 없는 사실주의의 밀림이 나를 질리게 했고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표정이 저 얼어붙은 동토처럼 차고 무겁게 느껴졌던 것일까?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는 KGB도 이제는 입구를 만들겠지.

일방통행이 많고 좌회전이 없었던 크레믈린 거리의 통행규칙도 더 많은 변화를 꿈꾸고 달라지겠지. 정말이지 기다리는 희망처럼 반전의 그 드라마는 모스크바강이

나 네바강처럼 더 융융한 흐름을 만들어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 체제를 바꾸고 사상을 바꾼 러시아의 더 큰 미래가 될테니까! 영광과 비애가 하나의 흐름으로 뒤섞여가고 더 많은 탐색의 비가 되어 내릴 때쯤, 버려진 땅 시베리아에도 지젤의 아름다운 선율이 불켜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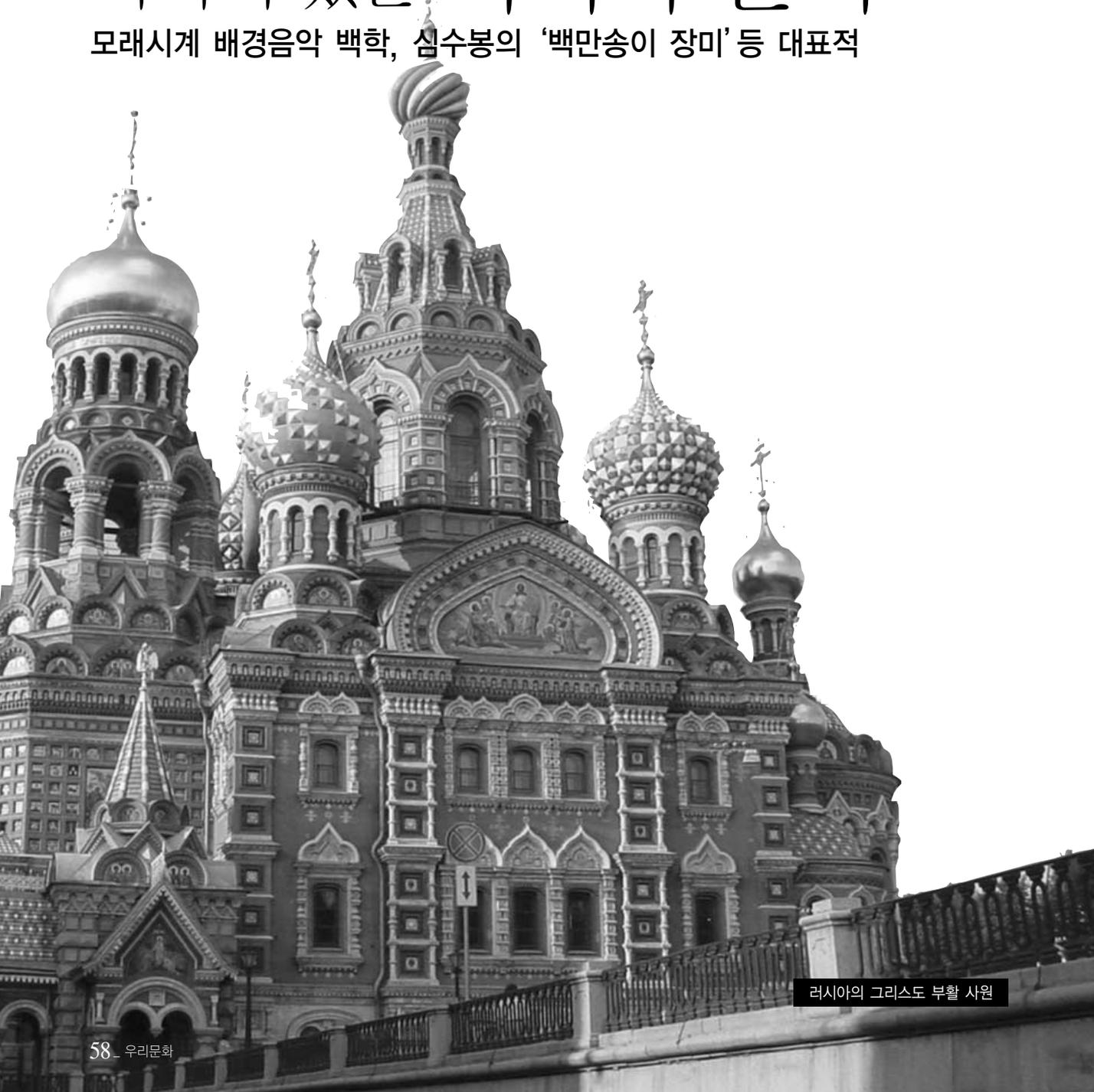


글 \_ 김 중 | 광주 서구문화원장 · 시인

한-러 문화교류 15년

# 멀리 있는 러시아, 가까이 있는 러시아 문화

모래시계 배경음악 백학,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등 대표적



러시아의 그리스도 부활 사원



• 하바로브스크 레닌광장

### ▶▶ 한-러 문화교류의 특징

무릇 교류는 쌍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러시아 문화의 특수성이 한국 문화의 전통에 어떻게 혼합되었는가? 한국 문화가 러시아 문화에 미친 영향은 또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 교류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와 국경의 일부를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부터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17년 러시아가 사회주의 사회로 바뀔 때와 동시에 서로 다른 사회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1990년 이전까지 러시아는 우리에게 철의 장막 속에 가려진 금단의 땅이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에 불어온 뼈레스트로이기는 우리와 러시아 사이에 막혀있던 장막을 거두면서, 문화, 예술,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주었지만, 이는 너무 준비없이 맞이하게 된 갑작스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년 동안 베일 속에 숨겨져 있었던 서로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강한 열기로 인하여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주·객관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 열기는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금방 사그러들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1991년 이전 한-러 문화 교류는 공식적인 외교 및 문화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의 교류가 아닌 전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문화 교류라 함은 1991년 이후부터 전개된 교류임을 먼저 전제를 해야 할 것이다.

### ▶▶ 러시아 문화의 특색은?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다민족 국가, 세계적인 과학 기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 흰눈과 자작나무로 대표되는 신비로운 나라 등 러시아를 소개하기 위해 앞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러시아 문화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러시아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정짓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종교적인 국가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어디에서든 교회나 이콘(성상화), 수도원, 성지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도 어렵지 않게 신부님들을 만날 수 있다. 988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 하바로브스크역

전에 러시아는 풍요로운 다신앙 체제였다. 샤머니즘, 애니미즘을 비롯하여 무속적인 성격이 강한 민간신앙이 발달했는데 기독교를 받아 들인 후에도 이러한 민간신앙은 민중들의 생활 곳곳에 남아 잔존하면서 현재까지도 민간신앙과 기독교의 이중신앙 체계를 이루어 러시아 문화와 민중들의 삶의 전반적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와 민간신앙의 이중신앙체계가 생활의 근저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우리 문화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생활방식과 의식 속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유와 관련하여 유사한 측면이 많다. 먼저 러시아의 축제들은, 물론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임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농경문화와 관련된 자연 숭배의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인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점'을 즐겨하고 믿으며, 미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

사한 '집들이', '돌잔치' 등의 풍속 등이 있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 ▶▶ 재러한인 문화

러시아에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추동시키는데 있어서 재러한인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현재 한-러문화 교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러한인으로는 소설가인 아나톨리 김, 시인인 허진과 스파니슬라브스키 강 등이 있으며 이미 작고한 화가 신순남도 한-러문화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재러한인은 스탈린에 의해 1937년 강제 이주된 이후 까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 아시아 지역과 사할린 섬, 연해주 지방과 하바롭스크, 러시아 공화국의 모스크바, 상-뻬제르부르그, 캄차카, 로스토프 지역, 우크라이나, 코카서스 지방 등 러시아 대륙의 전역에 산재하여 살고 있다. 이렇듯 여러 지역에 산재하

여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공동의 언어인 러시아어를 민족어로 사용한다는 구심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이중의 정서, 즉 러시아적인 정서와 한국적인 정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편 현재 소련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까자흐스탄 등의 지역에 '고려인 문화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으며 재러한인이 단 3명뿐인 에스도니아에도 설립되어 재러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재러한인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먼저 교육적인 이유인데 젊은이들이 대도시에서 높은 교육을 받아 보다 나은 사회 진출을 꾀하고 싶어하며, 다음은 경제 사정의 호전에 따른 활동 영역의 확장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급격하게 러시아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서, 한국적인 정서와 감수성을 상당부분 상실하여 거의 러시아화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주로 농촌 사회에서 집단을 이루고 사는 한인들은 아직도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인 가정에서는 밥에 김치, 나물류 등 우리의 식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자들은 결혼 후에도 자기의 성을 그대로 가진다.

또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효 사상이나, 남녀 유별의 원칙이 그대로 남아 있어 노인들은 공경을 받고, 남자들은 흔히 밥상을 따로 받으며,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엄격히 구분되어 집안일은 여자가 도맡아 하고 있다.

▶▶ 드라마, 음악 등 우리 생활 속의 러시아문화는?

러시아의 음악, 문학, 영화는 알게 모르게 우리와 매우 친숙하며 가까이 있다. 러시아 고전음악의 경우 러

시아 국민음악과의 일원인 「전람회의 그림」의 무소르그스끼와 「사드꼬」의 림스끼-코르사코프는 이미 우리에게 잘알려져 있는 작곡가들이며, 차이콥스끼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차이콥스끼가 작곡한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과 「피아노협주곡 1번」, 「바이올린 협주곡」은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 광범위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을 떨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과 「피아노협주곡 3번」, 스트라빈스끼의 발레곡인 「불새」와 「봄의 제전」,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을 비롯한 다양한 오페라, 발레곡, 영화음악 등도 우리가 쉽게 자주 접하고 있는 곡들이다.

또 러시아문학은 다른 외국문학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와 있으며, 우리의 근-현대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세기 초 러시아 민족문학의 창립자와 획립자로 인정받고 있는 뿌쉬킨의 「대위의 딸」과 고골의 「외투」, 19세기 후반 러시아문학을 세계 최정상 문학으로 자리매김시키면서 러시아 소설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만든 주인공들인 도스토옙스끼의 「죄와 벌」, 「까라마좁씨네 형제들」, 「악령」, 톨스토이의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체홉의 4대 희곡인 「벚꽃동산」, 「세자매」, 「바냐아저씨」, 「갈매



• 호두까기인형



• 빅토르 최

기, 푸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 「사냥꾼의 수기」 등이다. 20세기 초 러시아문학에 있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을 구현한 고리

끼의 「어머니」와 마야콥스끼의 시들, 20세기 중반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불가코프의 「가장과 마르그리타」와 「백위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솔로호프의 대하장편소설 「고요한 돈강」,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 「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 등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이며 한 번쯤은 읽어본 작품들이다.

반면 우리문학의 경우 1898년 「춘향전」을 필두로 러시아에 소개되기 시작하여 거의 110년이라는 긴 소개의 역사를 지니면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대중가요의 경우 모래시계에서 소개된 「백학」과 심수봉이 번안해서 부른 「백만송이 장미」, 「까츠키사」, 「모스크바의 밤」 등의 러시아 로망스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80년대 러시아 대중가요를 진두 지휘한 빅토르 최나 1990년대 러시아 대중가요계에서 인기 정상에 오른 아니따 최 등도 사회비판적이며 한국적 색채가 강한 노래를 부르면서 러시아에서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헐리우드나 다른 서구의 영화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소개된 러시아영화는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러시아영화가 지닌 특유의 무거운 색채때문에 헐리우드식 영화에 익숙한 우리의 관

객들이 외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인터걸」,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위선의 태양」, 「러브 오브 시베리아」등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흥행에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 의해 꾸준히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 ▶▶한-러문화교류의 현주소와 러시아 문화의 집

한국과 러시아가 역사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지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양국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해오고는 있지만, 그 활동이 다양하거나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그동안 이루어진 한-러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원장: 유리 포킨)의 주관하에 1999년 3월 22, 23일 ‘제1차 한-러포럼’을 필두로 매년 한국과 러시아를 번갈아가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한-러포럼’은 현재와 같이 한-러문화교류를 수행할 공식적인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양국의 효과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전략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방기관이나 대학, 개인단체 차원에서 ‘러시아 볼쇼이 오페라 주역가수 초청음악회’, ‘재러한인작가 초청회’, ‘신순남미술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러시아문화 교류의 끈을 면면히 이어가고 있다.



• 볼쇼이 아이스쇼

한편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주재 한국 문화홍



• 러시아인의 집 내부

보원이 한-러문화교류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다 9월부터 5월까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홍보원 전시관에는 한국 도자기, 악기와 한복인형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과 사진 전시회도 개최되며 멀티 미디어실에는 컴퓨터와 TV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에 관한 영상자료들을 감상할 수 있다. 매주 영사실에서 한국 극영화 및 기록영화를 상영하고, 7000권에 달하는 한국 관련 도서들과 정기간행물을 소장한 도서자료실은 모스크바에서 현대 한국 도서와 자료가 제일 많은 도서관이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 설립한 많은 종교 및 문화 단체가 있는데 그중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삼일문화원'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양국 문화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러 문화교류의 이러한 현실 상황을 감안하여 설립된 '러시아 문화의 집'은 한-러 양국의 문화 예술 교

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차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독립국가연합' 여러 나라들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증진 및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문화의 양양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 러시아 문화의 집

'러시아 문화의 집'은 문화센터(강의실, 자료실, 영상실), 출판부와 레스토랑(루슬란) 및 카페(아르바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 및 CIS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각종 문화강좌, 공연, 출판, 세미나, 러시아 연수, 테마여행 등을 개최·기획하며, 현실공간과 가상공간(www.rccs.co.kr) 양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정보 교류 촉진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글 \_ 엄순천 | 호남대 교수

# 문화와 도서관



인간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 즉, 지능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기초로 문화를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삶의 자아를 실현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인간은 그것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아를 실현한다 말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E. B. 타일러는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의 복합적인 총체”라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령은 “문화란 다듬어지고 의식화된 존재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의 모습대로 내버려져

있는 상태의 자연과 대응되는 의미”라고 답한다. 이 같은 답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얻은 모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 등을 다듬고 의식화한 존재양식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같은 문화는 국제문화·국가문화·하위문화(지역문화) 등 3가지 차원 즉, 국가 테두리를 넘어선 문화를 국제문화로, 국가 내에서 국민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국가문화로, 한 지역 내의 구성원들의 전통과 관습적 문화를 하위문화(지역문화)로 그 종류가 구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문화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발견 또는 발명과 외부로부터의 전파,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항상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이 같은 문화는 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자아를 실현케 한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국민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지역사회 주민이 삶의 과정에서 얻은 지

식과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② 이를 기초로 획득한 능력과 습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③ 이를 다듬고 의식화한 존재양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 ④ 지역사회 내에 어떤 전통과 관습 즉, 지역문화 중 어떤 문화가 계승발전 되고 있고 또 어떤 문화가 역사와 더불어 묻혀 있는지를 알아내고, ⑤ 이들 지역문화 중 어떤 문화가 국가문화화 되었고, 또 국가문화화 할 만한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알아내며, ⑥ 어떤 문화가 국제문화화 되었고, 또 국제문화화 할 만한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⑦ 외부의 어떤 문화가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⑧ 어떤 환경적 요인이 지역 내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⑩ 그 알아낸 결과를 콘텐츠화 즉, 문화콘텐츠화 하고, ⑪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집적하여, ⑫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지역 내에 문화원이 설립되었고, 문화원들은 그동안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역 내의 문화를 알아내 지역문화화 하는 일과 국가문화화 하는 일, 나아가서는 국제문화화 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원들은 이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그 결과로 유형·무형의 많은 문화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문화를 집적하고 전달하는 일 즉, 문화도서관 혹은 문화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문화원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필자는 문화원들이 그 산하에 가칭 문화도서관을 설치하고, 전문 사서를 배치하여 이를 운영케 하여 문화원이 알아낸(찾아낸) 소중한 지역문화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 만일, 문화원들이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문화도서관을 설립·운영하기 어렵다면,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내에 문화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문화원이 알아낸 소중한 문화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이를 기초로 보다 차원 높은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문**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 석양빛 머금은 진해 앞바다 노랫말에 담아 ‘황포돛대’

1967년 경남 진해시 웅동 앞바다 소재로 탄생  
진해출신 이용일 씨 군시절 향수달래며 만들어  
이미자 불러 히트...2003년 11월 6일 노래비 준공

(1절)

마지막 석양빛을 기폭에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해풍아 비바람아 불지를 마라  
파도소리 구슬프면 이 마음도 구슬퍼  
아-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 돛대야

(2절)

순풍에 돛을 달고 황혼 바람에  
떠나가는 저 사공 고향이 어디냐  
사공아 말해다오 떠나는 뱃길  
갈매기야 울지마라 이 마음도 서럽다  
아-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 돛대야

이용일 작사, 백영호 작곡, 이미자 노래로 유명한 대중가요 <황포돛대>는 가락이 맛깔스

럽다. 4분의 4박자로 전형적인 트로트풍이다. G코드 음(여성은 D)으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서정적인 냄새가 물씬 난다.

해지는 바다, 석양을 등지고 포구로 향하는 고깃배 모습이 아스라하게 그려진다. 누른 색깔의 돛을 단 배가 바다바람에 밀려가는 장면도 그렇고, 철썩이는 파도의 너울거림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노래 탄생 배경은 경남 진해시 앞바다.

해군사관학교, 통제부, 거북선 등 해군사령부와 군함들의 기지가 있는 진해는 군항이자 빛꽃으로 전국에 알려진 남녘의 아담한 항구 도시다. 15만여 명이 사는 진해시는 60여 개 동으로 시가지가 깨끗하고 시내 한 가운데 제황산(공원)이 우뚝 솟아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적산가옥들이 아직도 시내 곳곳에 있고 장복산 고개(터널)를 넘어가면 마산시, 창원시와 이어지고 옆으론 김해시와 닿는다.



진해시 행암만의 일몰

다도해 끝자락이자 천혜의 군항으로 한국해군, 해병대 발상지이기도 하다. 1945년 11월 손원일 제독 등이 우리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을 창설했고 1949년 4월 15일 진해시 덕산비행장에서 장병 380명으로 해병대가 출범한 것이다. 또 우리 나라 최초의 무역항인 제포(濟浦)가 조선시대 세종 초기에 개항됐으나 지금은 매립돼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노랫말이 만들어진 것은 이곳 출신 작사가 이용일(본명 이윤일) 씨와 관련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씨는 원래 진해시 대장동에서 태어나 살았다.

이 노래도 다른 대중가요처럼 에피소드들이 적지 않다. 노래탄생은 1963년 경기도 연천군지역에 있는 한 포병부대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씨가 포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세모가 가까운 12월 어느 날 밤이었다. 추운 날씨에 고향생각이 간절했고 부모님과 형제, 같이 뛰놀던 벗들은 모두 잘 있는지 궁금했

다. 전방부대에서 푸른 제복을 입고 군생활을 하던 그는 그 날 따라 어린 날의 고향생각에 젖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타관객지의 젊은 군인이 앓는 향수병 탓일까.

머리 속엔 온통 어린 날의 고향생각들로 가득찼다. 특히 파도가 넘실대는 진해 앞 바닷가 영길만이 눈에 아른거렸다. 석양빛에 비쳐 바닷물이 붉게 물든 모습이며 황포돛대를 달고 물러드는 웅동 포구의 고깃배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타임머신을 타고 떠난 겨울 밤 추억의 고향 여행 필름이 파노라마처럼 머리 속을 맴돌았다.

떠오른 고향 생각과 글들은 메모지를 가득 메웠고 그 가운데 서정적인 구절만을 추려 다듬은 게 바로 <황포돛대> 노래가사다. '마지막 서양빛을 기폭에 걸고...'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그로부터 4년 뒤 곡이 붙여졌다.

이씨의 군제대 후인 1967년 노랫말이 작곡가 백영호 씨에게 넘겨져 곡이 만들어졌다. 악



• 황포돛대 노래비

보가 완성되자 노래부를 가수를 찾았다. 노랫말 내용이나 멜로디흐름으로 볼 때 ‘천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여자가수 이미자가 적격자로 꼽혔다. 곡을 받은 이미자는 그렇게 해서 음반취임을 했고 레코드는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더우기 방송전파를 타면서 이 노래는 국민애창곡으로 히트해 눈길을 끌었다. 깔끔하고 해맑은 이미자의 목소리에 구성지게 넘어가는 곡조가 팬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노랫말 첫 머리에 나오는 ‘마지막 석양빛’은 작사가 이 씨의 어린 시절 어느 해 연말 오후 진해시 웅동 앞바다의 해지는 모습을 옮긴 것이다. 붉은 색의 석양빛이 돛에 어우러져 비친 모습을 ‘(석양빛을) 기폭에 걸고...’로 표현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씨의 고향 바다 모습이 노랫말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작사가 이씨는 하춘화가 부른 <물새 한 마리>, 이미자의 <꽃 한 송이> 등 20여 편의 대중가요 노랫말을 썼고 고향사랑실천에도 앞장섰다. 1985년 내고장 노래만들기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다양한 애향활동을 펼쳤다.

〈황포돛대〉는 맛깔스런 가락으로 석양을 등진 채 포구로 향하는  
 고깃배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누른 색의 돛을 단 배가 바다바람에  
 밀리는 장면이나 철썩이는 파도의 너울거림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하다.

진해시 노래인 〈진해찬가〉 노랫말도 이 씨가 썼다.

진해시는 〈황포돛대〉 탄생 유래를 알리면서 작사가 이 씨를 기리기 위해 진해시 남양동 324-8번지 해안관광도로 영길만 앞바다 쪽에 노래비를 세웠다.

2003년 2월초 진해시 문화공보실(☎055-548-2043) 주관으로 노래비건립 공모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그해 8월말 비를 만들어 9월 1일 준공식을 하려다 태풍(매미) 때문에 11월 6일로 늦춰져 개막식이 열렸다. 노래비 제막식은 김병로 진해시장, 진해시 출신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문화·예술계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해 비 준공을 축하했다.

가로 5m, 세로 6m, 높이 7m 크기의 비는 화강석과 청동을 재료로 제작됐다. ‘고향의 향수’란 작품명이 붙은 노래비 앞면엔 노랫말, 뒷면엔 작품설명이 새겨졌다. 제작비는 약 1억 원. 비를 보고 있으면 일정시간마다 〈황포돛대〉 노래가 흘러나와 감흥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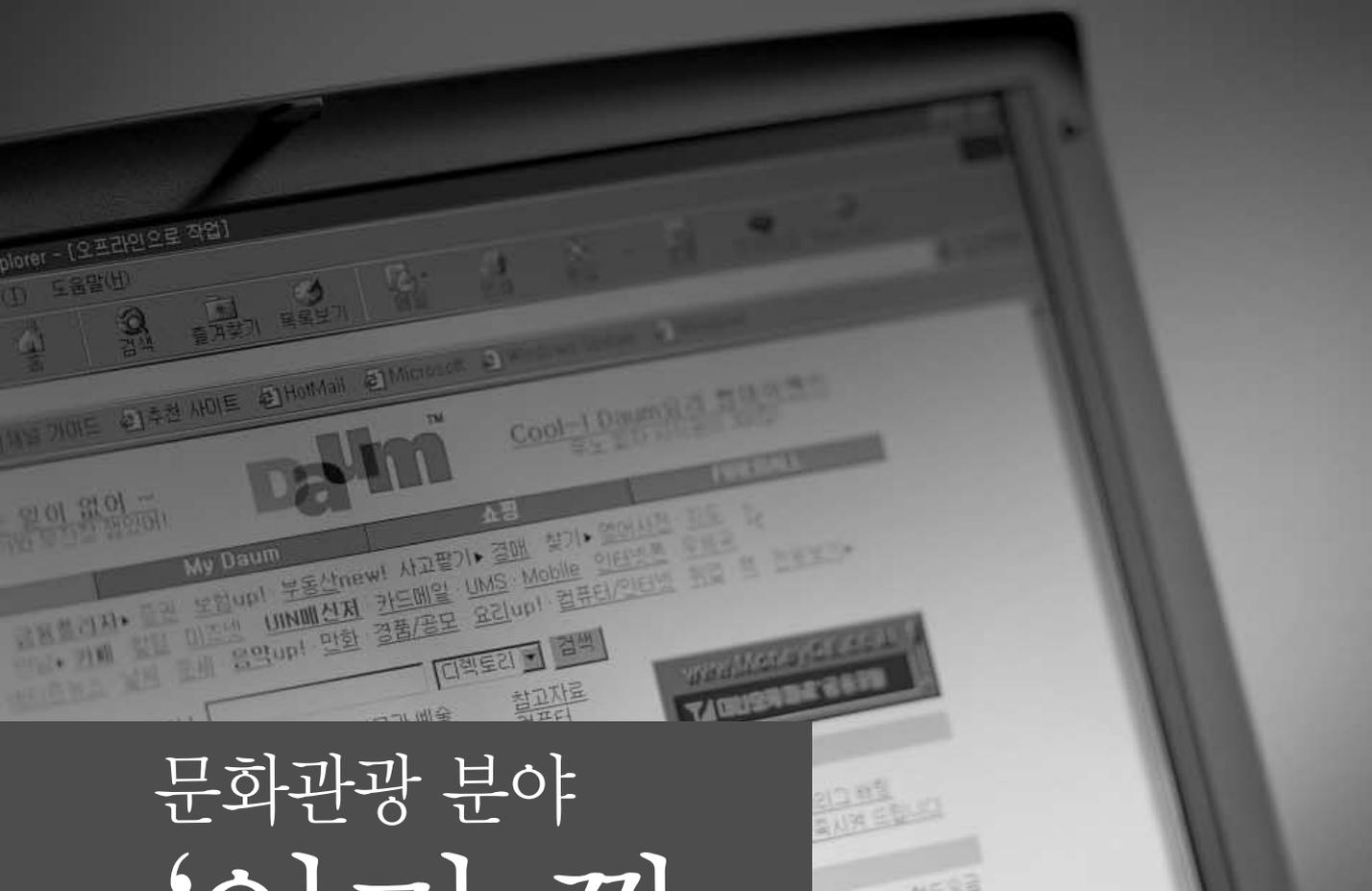
노래비 주변엔 웅천왜성, 안골왜성, 수치해안면 등 볼거리가 많고 횃집들도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노래를 만든 작사가(이용일), 작곡가(백영호)는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가수(이미자)는 KBS-1TV 가요무대 프로그램 등에서 노래 탄생 39년째를 맞고 있는 〈황포돛대〉를 가끔씩 불러 세월무상을 느끼게 한다.



#### 기자가수 \_ 왕성상

필자는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기자가수다. 경남 마산출신으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와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70년대 말부터 신문기자생활을 해오면서 ‘이별없는 마산항’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소속(등록번호 856번)으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 wss4044@hanmail.net



문화관광 분야

# ‘인기 짱

## 개인미디어 · 커뮤니티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열풍을 일으킨 1인 미디어를 비롯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네티즌들끼리 만들어가는 카페·클럽·페이퍼 등…. 지금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판하며 제한하는 막강한 파워의 미디어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인 운영자가 이끌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인기가 높은 개인미디어·커뮤니티를 뽑아 봤다.

# Blog Caf'e Club

■나의 문화 유산 답사 <http://cafe.daum.net/7116>



2000년 3월 개설된 카페(운영자 : 정표채)로 2001년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회원들과 교류하며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별 담당 운영자들과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전국을 답사하고 있다. 3월, 6월, 9월, 11월 네 번의 정기답사와 이 달들을 제외한 달에 지역별로 다녀오는 지역 답사가 있다.

정기답사의 경우 1박 2일 일정의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참가하며 보통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행사이다. 지역답사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나뉘어진 지역의 지역장을 중심으로 보통 당일 답사로 다녀오고 있다.

이러한 문화 답사는 교과서에서 볼직한 잊혀져 가는 유적지를 찾다니며 옛 기억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의 학습장이 되고 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 2005년 정기답사 일정

- 제 17차 (3월 26~27일) : 해인사, 고령 지산동 고분, 도동서원
- 제 18차 (6월 18~19일) : 해남 완도 지역 (녹우당, 대둔사, 미황사, 땅끝, 청해진 유적지)
- 제 19차 (9월 24~25일) : 경주 지역
- 제 20차 (11월 12~13일) : 경북 대구/구미 지역

■여행정보마을 <http://cafe.daum.net/young1080>

전국의 맛집과 숙박시설, 여행정보가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설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 카페. 여행 질문 방에서는 여행과 관련한 질문을 따로 받으며,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이 금방 올라온다. '전설 민담방', '신비 탐험방' 등에서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 자료들이 많다.



■조민성의 축제여행 <http://cafe.daum.net/eventtour>

축제와 이벤트 전문카페로 축제 소식 및 축제 강연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축제를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공유하는데 카페 목적이 있는 곳. 공연전문가 육성을 위한 '조달호의 공연학교'와 '한국이벤트개발원 이벤트 세상' 폴더에서의 정보 또한 유익하다.



■일상탈출 <http://cafe.daum.net/trip7788>

지역별 정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카페. '일탈가족'이라고 칭해지는 회원들끼리 지역별로 잦은 모임을 갖고 여행을 떠난다. 회원간 추천 여행지나 펜션 정보는 여행 준비자들에게는 제법 중요한 정보가 되어 줄 수 있겠다. '일상탈출 테마여행'은 농림부, 한국문화관광연구소와 함께 매달 농촌 테마마을 체험을 진행한다. 각 지역모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가족동반도 가능하다.



■산/바다여행 <http://cafe.daum.net/sanbada12>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취향에 맞게 여행지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래프팅을 비롯하여, 각 지역 구석구석 여행지를 찾아다닌다. 회원들 투표로 다음달 여행지를 뽑기도 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카페 중 하나.



사이월드 (www.cyworld.com) 페이퍼 · 클럽

■산/바다 여행일기 <http://paper.cyworld.com/sanbada>

다음 카페의 『산/바다여행』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개인 미디어 형태인 페이퍼로 발행하는 곳. 여행가 김영운씨가 직접 국내 여행 정보와 여행 후기, 여행 사진들로 꾸미고 있다.



■슈의 국내여행 가이드 <http://paper.cyworld.com/shu>

여행 관련 정보를 운영자(김연수)의 아기자기함과 꼼꼼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페이퍼. 여행지의 출발부터 꼭 들려야 할 곳, 맛난 식당, 적은 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 등을 차근차근 소개해 여행 전 익혀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풍경과 함께한 스케치 여행 <http://paper.cyworld.com/windbell>

여행을 즐겨하는 운영자(이장희)가 여러 곳을 둘러보며 찍어 둔 사진집들이 아름답다. 사진을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가방을 메고 떠나고픈 충동을 느낀다.



# Blog Caf'e Club

## ■금·토·일 in 컬처플러스 <http://cultureplus.cyworld.com>

사이월드 클럽에 이번에 개설된 문화 커뮤니티. 주5일제다 토요일무제다 하여 주말에 무얼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주말 여행 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 뉴스를 알려주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로 담은 이쁜 사진과 그림들, 여행에서 필요한 쉬운 영어 한마디, 문화 속보를 비롯 운영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글 등 유익한 볼 거리가 많다.



## 네이버 ([www.naver.com](http://www.naver.com)) 카페·블로그

### ■여행의 향기 <http://cafe.naver.com/neogeogo.cafe>

여행지 정보와 축제 정보가 자세히 구분되어 나와 있다. '봄꽃 여행지', '제주도 여행지', '영화&드라마 촬영지', '오지마을', '휴양림', '국립공원', '바다&섬' 등 자세한 분류와, 달별로 알림이 역할을 하는 축제 정보가 볼 만하다.



### ■기차여행카페 . 바이트레인 <http://cafe.naver.com/hkct.cafe>

철도 애호가들의 웹 단체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차시간표의 재미로운 조화를 통한 수준 높은 기차여행을 제공하고 있다. 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코너를 통해 철도 지식도 쌓으며 철도 관련 여행 소식도 접할 수 있다.



### ■전상욱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jswabc1.do>

우리나라 보물 및 국보급 유물이 잘 정리되어 있다. 호수별로 설명되어진 유물들을 사진과 함께 보며 살펴볼 수 있다.



### ■현주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siksiky77.do>

축제, 그림, 마임, 무용, 연극, 영화, 공연, 문학, 전시, 파티 등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있다. 특히 축제와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통이 될 수 있겠다.



글 \_ 김미진 기자

## 지역특성 맞춘 체험관광지 개발

### 전북도, 4개 권역 나눠 추진

전북도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맞춰 2008년까지 권역별 문화체험 테마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266억원이 들어가며 국비, 지방비로 절반씩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1권역(진안, 무주, 장수)▶2권역(남원, 임실, 순창)▶3권역(정읍, 김제, 고창, 부안)▶4권역(군산, 익산, 완주)으로 구분해 사업을 하기로 했다.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1권역은 산나물 채취와 인삼 캐기, 사과 따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리산에 인접한 2권역에는 공예품 만들기과 치즈 가공 장

만들기, 산림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꾸민다. 평야지대로 이뤄진 3권역은 바지락 캐기와 요트 타기, 복분자 체험 위주로 개발한다. 도시문화권인 4권역에서는 실내 해수(바닷물) 체험과 보석 가공, 감 식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전북도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조성 중인 녹색농촌체험 마을 18곳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숙박지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시설과 생태 숲·하천 등 체험장, 산림휴양관 등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어촌의 경우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과 어촌형 펜션, 주말농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출처 : 중앙일보)

## 강릉단오제 국제 워크숍

강원도 강릉시와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5 무형문화유산보호 지방정부 관리자 국제워크숍'이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기간 강릉에서 열렸다.

8일부터 11일까지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뉴질랜드와 베트남, 이탈리아, 이집트 등 유네스코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5개국 지방정부 관리자와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이 열렸다.

'지속 가능한 발전,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간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작년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국제시장단회의의 후속 사업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도시간 협력네트워크 창설의 준비모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회의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지방정부 관리자 중심의 회의로 무형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학자와 지방 정책담당자들간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번 회의가 다양한 접근 방법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발과 유산 보존의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함으로써 과거 이분법적인 접근방법을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지역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한국이 무형유산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평택문화원, 내년 초까지 문화마을 조성 추진



학생 수가 줄어들어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해 2000년 9월 1일 폐교된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가 내년 초 문화마을로 변모해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평택문화원(원장 : 오용원)은 최근 경기도평택교육청과 평택시로부터 폐교인 금각분교 사용 승인을 받아 평택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6월 1일 평택문화원에 따르면 “시민들로부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어왔다.”며 “이번에 폐교된 금각분교를 활용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각분교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과 동시에 시민에게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말농장과 작은 음악회 등을 운영해 주 5일 근무제에 걸맞은 가족 단위 문화마을로 가꿔나간다는 것이 평택문화원의 구상으로 이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 사업 시행시 반영할 계획이다.

평택문화원은 이를 위한 첫 단계로 6월 8일 평택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택문화마을 운영 공개토론회’를 개최, 문화마을 이름과 프로그램 운영, 입주할 예술인 선정 등을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해 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출처 : 연합뉴스)

## 정지용 시인 문학관 개관

정지용(1902~?) 시인의 문학관이 5월 14일 그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 문을 열었다. 정지용문학관 개관식은 옥천군·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중앙일보·문화관광부 등이 후원한 제18회 지용제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예산 10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문학관은 부지 1216㎡에 지상 1층 409㎡ 규모로 필름 상영·작품 원본 전시 등 시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전시 시설을 갖췄다. 14~15

일 이틀간 열린 지용제엔 이번 정지용문학상 수상자인 유자호 시인을 비롯해, 이근배, 황금찬 시인, 최동호(고려대), 김재홍(경희대), 윤재웅(동국대), 박태상(방송대) 교수 등 문인 30여 명과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했다. 해마다 지용제에 참석해온 시인의 장남 구관씨가 지난해 노환으로 별세해 손자 운영씨가 그를 대신해 유족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다.

# 전국문화원 새로운 얼굴

## 서울 용산문화원장 박영희 씨 선임



용산문화원은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박영희(朴永姬 69)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같은 장소에서 곧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

서울대 사범대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수학과를 졸업하고 풍문여중·고와 송의여중·고에서 교사를 역임하였다. 중경고 운영위원장과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박 원장은 취임사에서 “용산구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지방문화재 탐구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원 회원 배가 및 문화강좌의 내실화로 회원들에게 쾌적한 문화환경 제공과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서울 성북문화원장 천신일 씨 선임



성북문화원은 작년 12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천신일(千信一 61)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금년 3월 31일 문

화원 1층 강당에서 서찬교 성북구청장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천 원장은 경남중·고를 거쳐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동양철학 상무이사 와 제철화학(설립) 동해산업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세종엔지니어링, 세종

정보기술 대표이사 및 (주)세종 GAME BOX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과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일본 유출 문화재 환수의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서훈한 바 있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서울 양천문화원장 이경동 씨 선임



양천문화원은 2월 25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이경동(李卿東 59)

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3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추재엽 양천구청장과 정육채 구로구의회 의장, 국회 김낙순 의원을 비롯해서 양천구의회 의원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 원장은 단국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중부운수(주) 대표이사와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양천문화원 초창기부터 부원장으로 문화원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 서울 구로문화원장 장영신 씨 선임



구로문화원은 2월 23일 오후 3시 구로문화원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원장에 장영신(張英信 68)

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3월 10일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정달호 구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문화원 이사 및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장 원장은 60~70년대 어려웠던 난관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애경그룹을 일구어 왔듯 구로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여고와 미국 체스넛힐 칼리지를 졸업하고 애경그룹 회장으로 재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6대 국회에서는 의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충남 홍성문화원장 전용택 씨 선임



홍성문화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전용택(田溶澤 52)씨를 만장일치로 후임 원장에 추대

했다.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을 수료한 바 있는 전용택 원장은 한국유선방송협회 충남지부장과 홍성라이온스클럽 24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부 홍성지원 가사조정위원과 (주)한국케이블TV 모두방송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부산 강서문화원장 박홍목 씨 선임



부산 강서문화원은 2월 25일 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박홍목(朴洪穆 66)씨를 만장

일치로 추대했다. 같은 날 강인길 강서구청장과 김행곤 강서구의회 의장 및 문화원 임원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지역문화 전승과 홍보 파수꾼으로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박 원장은 부산상고와 서울대 농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2년간 덴마크 농업연수를 다녀왔다. 대저농협 조합장과 부산 낙동강라이온스클럽 회장, 강서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대전 대덕문화원장 류해상 씨 선임**



대덕문화원은 1월 27일 당 문화원 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류해상(柳海相 68)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2월 22일 내외 귀빈과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1995년 1월부터 8년간 대덕문화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류 원장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경영대학원을 이수한 바 있으며 중화실업 대표이사, 길산운수 대표사원 및 이사, 한발라이온스클럽 회장 등을 역임하고 2000년도부터는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장을 맡아 지방문화원 발전에 기여해 왔다.

**강원 속초문화원장 노광복 씨 선임**



속초문화원은 1월 25일 당 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노광복(盧光福 61)씨를 만장일치로 새 원장에 추대, 2월 25일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동문선 속초시장과 고경재 부회장, 이대근 강원도지회장 및 인근지역의 문화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노 원장은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과 문화원 이사를 거쳐 부원장을 역임

하는 한편, 설악문화재위원회 감사, 속초시 체육회와 배구협회의 전무 및 부회장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다. 그는 취임사에서 “향토문화의 진작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속초 고유의 문화를 계승 선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충북 청원문화원장 오경세 씨 선임**



청원문화원은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오경세(吳敬世 67)씨를 만장일치로 후임 원장에 추대하고 3월 10일 청원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효진 청원군수와 청원군의회 변장섭 의장 및 다수의 군의원과 김학선 교육장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오 원장은 95년 현도면장 퇴임 후 현도초등학교총동창회장과 현도번영회장 등을 역임하고 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충남 천안문화원장 권연옥 씨 선임**



천안문화원은 1월 14일 정기총회에서 권연옥(權連玉 70)씨를 만장일치로 새 원장에 선임하고 2월 14일 심대평 충남지사와 성무용 천안시장,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권 원장은 국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해전대학, 청운대 교수와 국정홍보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객원교

수와 한국미래연구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인간관계론과 지역사회개발론, 신재무행정론 등 8권이 있다.

**충북 영동문화원장 정원용 씨 선임**



영동문화원은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정원용(鄭元溶 55)씨를 만장일치로 새 원장에 선임하고 3월 16일 영동문화원 강당에서 관내 기관 및 단체장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정 원장은 현재 영동인터넷고등학교 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후학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는 문화를 가꾸어 나갈 것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충남 부여문화원장 윤준웅 씨 선임**



부여문화원은 2월 26일 국립부여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열고 3명의 입후보자를 놓고 경선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59%를 얻은 윤준웅(尹俊雄 63)씨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지부장과 초대 충남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 원장은 ‘사진으로 본 부여100년’을 출판하는 등 사진작가로 활동해 오면서 문화예술부문 부여군민대상을 수상했고, 문화원 운영위원과 이사를 거쳐 현재는 부여박물관 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충남 예산문화원장 이진자 씨 선임**



예산문화원은 금년 1월 정기총회에서 6명의 원장 입후보자가 경선을 벌인 가운데 최다 득표를 한 이진자(李鎭子 45)씨를 신임 원장에 선임하고 1월 5일 문화원 총공연장에서 각급 기관장 및 단체장과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원장은 목원대 미술대와 홍익대학원(미술교육)을 졸업하고 대흥중·고 미술교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수 많은 작품 제작과 초대전을 가졌다. 이전까지 부원장으로 문화원 운영에도 참여해 왔으며 현재 목원대 미술대에 출강하고 있다.

**전북 구례문화원장 김정일 씨 선임**



구례문화원은 1월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두 분의 원장 입후보자 가운데 다수 득표자인 김정일(金正一 64)씨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하여 문화원 임원 및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원장은 순천 매산고를 졸업하고 구례군 광의면장과 구례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오래 전부터 문화원 부원장으로 문화원 발전에 헌신해 왔다.

**충남 아우내문화원장 우용제 씨 선임**



아우내문화원은 2월 17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우용제(禹庸濟 67)씨를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추대하고 3월 29일 천안시 권영학

부시장과 이정원 의회 의장, 그리고 국회 양승조 의원과 많은 시·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우 원장은 강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거쳐 재단법인 풍산공원묘원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인천 계양문화원장 홍창의 씨 선임**



계양문화원은 4월 15일 오후 3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원장에 홍창의(洪昌儀 71)씨를 만장일치로 추대

했다. 전국 유림의 총본부인 성균관 유도회 부회장과 인천지역 평생교육봉사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전국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시·도단장협의회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 원장은 취임사에서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임에도 문화원 창립이 늦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열성껏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전주문화원장 서승 씨 선임**



전주문화원은 1월 29일 시내 호남성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서승(徐昇 63)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3월 2일 문화원 강당에서 관내 주요 기관장 및 문화원 임원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서 원장은 전주고를 거쳐 전북대 농대를 졸업하고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과 우리문화진흥회 상임이사, 호남오페라단 부이사장 등으로 언론계와

지역 문화 예술창달에 이바지해 왔다.

**전남 목포문화원장 김석철 씨 선임**



목포문화원은 지난 해 10월 18일 목포 초원관광호텔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김석철(金錫澈 69)씨를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추대했다.

목포상업학교와 목포사범학교를 거쳐 경희대 법률학과와 방통대 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원장은 목포고대부속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목포학생도서관 초대 관장과 목포 삼동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46년간 교육계에서 후진양성에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문화원 부원장과 문화학교 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남 광양문화원장 박노회 씨 선임**



광양문화원은 2월 25일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박노회(朴魯檣 66)씨를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추대하고 3월 30일 광양읍 칠성리 잔치마당 연회장에서 이성웅 광양시장과 남기호 광양시의회 의장, 조남식 전남지회장, 백옥인 광양시경제자유구역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과 미국 하버드대 고위정책결정과정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주)광양택시 대표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양지구협의회장과 백운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고품질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전력을 투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남 의령문화원장 강홍석 씨 선임**



의령문화원은 1월 15일 의령군청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원장에 강홍석(姜洪錫 65)씨를 만

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강 원장은 경상남도 문화체육과장과 의령군 부군수를 역임한 바 있는 관료 출신으로서 선거 당일 한은상 의령군수와 전병욱 의령군의회 의장, 그리고 박현호 경남도지회장 및 많은 문화가족이 함께한 자리에서 취임사를 통해 전통문화 보존과 새로운 문화접목을 강조하고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해 나갈 것

을 다짐했다.

**경남 함양문화원장 김성진 씨 선임**



함양문화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김성진(金聲鎭 66)씨를 만장일치로 신임 원장에 추대하고

금년 1월 14일 함양문화원 회의실에서 천사령 함양군수 등 각급 기관장 및 단체장과 문화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경기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함양신문 논설위원과 경남문인협회 부회장을 거쳐 함양향토문화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서 다음 세대에 보다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우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남 창녕문화원장 이이두 씨 선임**



창녕문화원은 2월 25일 문화원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원장에 이이두(李二斗 69)씨를 만장

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이 원장은 동아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학숙(창녕고·영산여중고)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이바지해 오고 있으며 직전까지 창녕문화원 이사를 역임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에 김이기 씨**



전국문화원연합회는 6월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05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하만기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참석 이사

원일치로 김이기(金利基 51)씨를 신임 사무총장(2005. 7. 1 ~ 2008. 6. 30)으로 임명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총장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리업무 총괄 등을 맡아 왔으며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했다.

김 총장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리업무 총괄 등을 맡아 왔으며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했다.

**동작문화원 이윤선 사무국장 ‘동작구민상’ 수상**



지난 4월 제12주년 동작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동작문화원 이윤선 사무국장이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과 구정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동작구 문화 체육발전부문에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했다.

한편 동작문화원은 지난 6월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Hi Seoul 페스티벌 2005 퍼레이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송파문화원, 청소년을 위한 전통혼례 첫 시연

송파문화원(원장 신중식)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혼례문화와 예절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 매일 한 차례씩 신혼 및 결혼기념(석혼·은혼·금혼 등) 축하 전통혼례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초·중·고교 휴무제가 실시되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혼례 체험행사도 마련한다.

전통혼례는 잔치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 혼례를 축하하고 풍요와 자손의 기원하는 축하 공연까지 1시간여 동안 진행된다. 전통혼례는 특히 집례를 맡을 '호홀' 1명을 비롯 신랑·신부를 돕는 '수모' 4명, 기러기를 들 '안부' 1명 등 집례에 필요한 인원만도 30여명 정도.

한편 서울놀이마당 전통혼례는 20여년째 전통문화계승 단체인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이사장 진민자)이 주관한다. 혼레이용신청은 선착순 접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혼례 체험행사는 단체참여도 가능하다.

•문의 : 송파문화원 (02)410-3619

## 저작권 보호 활동 본격 궤도 올라

지난 4월 26일 출범한 저작권보호센터가 소리바다3 헤비유저 및 소리바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저작권보호센터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6,330건을 적발하여 자진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단속 모니터링 실적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은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불법링크, P2P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간 공유, 웹하드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공유 등이 주류를 이뤘고 분야별로는 음악 1,146건, 영상 4,003건, 출판 1,181건등 총 6,330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4,689건에 대해 자진삭제를 요

청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한 저작권보호센터는 6월까지의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겠지만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카페나 블로그 10여 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관련 협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기구로 온·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 단속과 함께 저작권 관련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청소년과 누리꾼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책 등을 제작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1995~2004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수집 10년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수집한 유물 가운데 대표적인 유물 160여점을 선정, 5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시하는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수집 10년」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199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개관 후에 수집된 유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의·식·주·사회생활·과학기술 등 다섯 주제로 나뉘었다. 의생활에는 의복, 장신구 등이 식생활에는 식기, 도자기 등이, 주생활에서는 가구, 침구, 침선구 등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관혼상제, 놀이, 교통통신 등이, 과학기술에는 천문, 풍수지리 관련 유물이 선보여졌다.

생활과 관련해서는 구한말 반가(班家) 여자의 예복인 당의와 원삼, 남자의 공복·제복·상복 등이 전시되는데, 이는 조선후기와 달리 변모된 구한말 복식을 살필 수 있었다. 식생활 부문에서는 술·학·연꽃·국화·난초 등 화려함과 길상의 의미를 가진 상징물들을 그려 넣어 주인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던 여러 수저집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함경도지역에서 사용하던 향아리인 '석간주향아리'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서민적인 아름다

사랑방



목안(높이21.8 길이30.5)



백자복숭아형연적(높이11.8 바닥지름8)



해시계(높이1 지름5.8)



장기알(높이1.7 지름5.2)

움과 실용성을 느낄 수 있었다. 주생활 부문에서는 당시의 생활상과 염원을 표현한 그림들이 그려진 병풍을 보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약저울을 꼽을 수 있는데, 약저울은 조롱박 형 저울집 속에 저울과 저울추가 들어있다. 저울의 눈금은 20돈과 100돈이 위아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20세기 초의 도량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사회생활 부문의 일생의례 유물로는 인륜지대사라는 혼례에 사용되던 기러기와 목안보(木雁褙), 요여, 석

관, 감실(신주를 넣어 모시는 간이사당) 등이 전시됐다. 기러기는 혼례 중 전안례에 사용된 것으로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도록 제작되었고, 부리에는 쭉색과 붉은색의 술이 꿰어져 있고 녹·황·적·홍색의 깃털이 새겨져 있는데, 혼례에 사용되는 일반 나무 기러기에 비해 화려했다. 요여는 상례 때 신주를 모셔 나르는 가마로 전면 좌우측에는 2자형 창살문이 있고, 꽃, 학 등이 가마에 그려져 있었다. 이와 함께 옛날 조상들의 놀이문화를 알 수 있는 놀이 도구에는 바둑판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바둑판은



석관무늬

석관(전체높이39 세로45 가로78)



백자철화용문호(높이32.5 입지름18 바닥지름11.5)

324개의 대모를 잘라 붙이고, 상판은 나전으로 장식돼 있었다. 몸통은 용과 호랑이가 새겨져 있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는 듯 했다.

10여년간 모아 놓았던 유물들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특별전에서 한번도 보인적이 없던 유물들이라 그 의미가 컸다. 가치 있는 유물 하나 하나를 둘러보며 옛 선인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동자상(높이28.6)



화각함(16 세로15.5 가로24.2)



청자연화문태호  
(높이23 입지름9.5 바닥지름10.3)



감실(높이69 세로40 가로177.5)



**요여**

요여는 상례(喪禮)시에 망자(亡者)의 혼백과 신주 등을 나르는데 쓰이는 가마로, 특히 시체를 묻은 뒤에 망자의 혼백은 물론, 망자가 평소에 쓰던 옷가지와 신발 등을 넣어 가지고 돌아올 때 쓰인다. 요여라는 명칭은 허리 정도의 높이로 맨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영혼을 실어 나른다는 의미로 '영여'(靈輿)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혼백을 담는다고 하여 '혼백상여'라고도 한다.

소개하는 요여는 나무판을 맞대어 직육면체로 만들고 외면에 칠을 한 다음, 하단에 홈을 내고 2개의 요여채(길이 181cm)를 끼워 두 사람이 들 수 있도록 했다. 앞면 하단에는 10cm 가량의 난간을 두어 망자의 영정(影幀)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며, 앞면에는 혼백과 옷가지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여

닫이 형태의 창살문을 내었다. 그리고 지붕에 붉은색 용을 덮고, 외면에 자문과 꽃 등의 문양을 선각(線刻)하여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해좌전도(독도 부분을 확대한 사진)



해좌전도(세로100 가로58.3)



활옷 무늬



### 활옷

조선시대 궁중예복으로 쓰이던 소매가 넓은 옷으로, 화려한 수가 놓여있다.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 번 입어 볼까 말까 하던 신부복이다. 보통 마을에 한 벌 정도씩만 있어 대여를 해주었다. 전체적으로 수가 들어간 점이 또 다른 궁중예복인 '원삼'과 큰 차이라 할 수 있겠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들어간 수가 곱다.

### 대모바둑판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19줄로 되있는 한국 전통 양식이 특이하다. 324개의 대모를 잘라 붙이고, 상판의 가장자리는 나전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뽐내었다. 몸통부에는 용과 호랑이를 새겨 바둑판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글 \_ 김보라 기자



남해, 남망산 공원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통영항



서해, 꽃지펜션촌에서 바라본 꽃지해수욕장 풍경



동해, 화진포 해변의 모습

7~8월 추천! 여름휴가지

# 3면의 바다에서 3색의 추억을 건져올리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일부가 대륙 또는 육지에서 돌출한 땅’  
 이러한 땅을 우리는 ‘반도’라 일컫는다.  
 우리의 땅 한반도, 국토의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각각의 바다는 저마다의 색깔과 느낌을 지니고 있다.  
 올 여름 웰빙 휴양의 포인트를 반도의 세 극점에서 맞이하면 어떨까?  
 달리다 보면 풍광에 동화되어 어느 순간 세상의 시름을 툇 놓아버릴 수 있는  
 드라이브 포인트가 있고, 자녀에게는 볼거리와 학습의 장을 선물 할 수 있고,  
 아침에 눈뜨면 고요한 바다의 서정에 시인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을 찾는다면, 남해의 통영으로, 서해의 꽃지로,  
 동해의 화진포로 떠나길 권한다.

## 동양의 나폴리 남해의 통영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문학적 감성을 지닌 이라면 유치환의 시 ‘깃발’을 모를리 없다.

극작가인 동생 유치진씨와 함께 유치환의 고향은 통영이다. 최근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는 국제적 음악가 윤이상의 고향도 통영이며, 우리에게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로 알려진 박경리씨 또한 통영 사람이다. 이 외에도 통영에서 나고 자란 수많은 문화, 예술, 체육인들이 있다. 한 터에서 이렇게 많은 예인이 탄생 하는데는 어떤 연유가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저 운전대에 손 올리고 통영 초입의 원문고개를 힘겹게 오르고 보면…, 아! 감탄이 절로 나는 호수 같은 바다. 거기서부터 이미 예술인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충천연색 갈라풀한 기대감으로 통영을 찾을테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라면 이내 실망하고 만다. 통영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깊이 묻어둔 시인의 속내가 한번 두 번 싹귀를 읊조릴

때 마다 폴폴 제 향을 훔날리듯, 그저 차분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속에서 다도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 그저 조용한 사색지로서의 색깔을 갖추고 있는 곳이 통영이다. 남해의 특징은 다도해다. 통영 앞바다에는 무수히 많은 섬들이 하늘에서 흩뿌려 놓은 듯 박혀있다. 익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산도는 통영항에서 유람선으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고, 바위섬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매물도 역시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 역시 통영 해안에서 바라보면 바로 눈앞에 있다.

## 해양생태의 학습장 수산과학관

남해의 맛깔난 바다정취를 즐기기 위해서는 통영구름다리를 건너서 산양면 일주도로를 달리면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란 이름이 보증하듯 맑은 남해바다와 깨끗한 하늘이 언제나 여행객의 눈을 시리게 만든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산양면 일주도로의 중간지점, 구름다리에서부터 약30분쯤 달려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에 들러보길 권한다. 성인 1인당 1000원 내외의 입장료로 각종 해양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



통영구름다리

다. 수족관에서 유명하는 물고기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이에게 가르쳐도 좋고, 우리가 먹는 김이며, 굴이며, 미역이 어떻게 해서 상에 오르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어도 좋다. 박제된 해양생물들의 원형도 볼 수 있고, 얇은 수족관에 담긴 수중생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볼 수도 있다.

산 언덕에 놓여있는 수산과학관에서 바라보는 남해의 풍광 또한 일품이다. 투명 창으로 지어진 과학관의 창 안에서 침묵과도 같이 고요한 은빛물살의 일렁임을 바라보아도 좋다. 아니면 창 밖으로 나가서 찌르레기 울음소리와 산들바람에 묻어오는 신선한 솔향에 몸을 씻어도 좋다.



바다의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는 통영수산과학관

일주로를 한바퀴 돌아 다시 도심 입구로 접어들 즈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호젓한 바닷가에 우뚝서 있는 금호리조트이다.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면, 이 곳에 여장을 풀고 하루일정을 정리하면 된다. 성수기에는 너무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다행히 이곳을 숙소로 정했다면 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해바다의 풍취에 아마 절반은 시인이 되리라.

리조트 앞쪽으로는 요트장이 있고 화려하고도 멋진 개인용 요트에서 리조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용 요트까지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물론 요트를 이용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통영의 먹거리로는 ‘충무김밥’이 있다. 1988년 국풍 81행사중 전국민속음식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바 있는 ‘충무김밥’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음식이기도 하다. 당시 대상의 주역이었던 ‘똥보할매’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솜씨만큼은 전수되어 원조식당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청정해역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회 맛도 일품이고 바다의 우유라는 ‘굴’의 주산지이므로 ‘굴밥’ 및 각종 굴 요리를 접해 보아도 좋다.



통영금호마리나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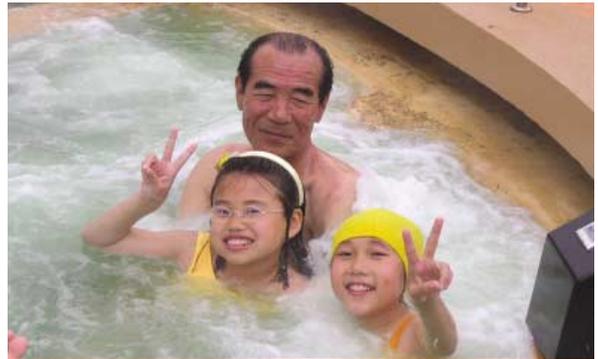
## 낙조의 절경 서해의 꽃지해수욕장

서해의 낭만은 뭐니 뭐니 해도 낙조가 아닐까 싶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 있고, 넓고 단단한 백사장은 달려보고 싶게 만든다. 거기에 때문지 않을 정도의 휴양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금상첨화. 이러한 삼박자 요소를 모두 갖춘 곳 그곳이 바로 꽃지이다.

꽃지해수욕장의 낙조는 너무도 유명하여 많은 사진작가들의 작품 속에 담기고 전시된다. 특히 해변 한쪽에 우뚝 솟아있는 전설을 지닌 할매, 할매 바위에 저녁놀이 걸릴 때는 탄성이 절로 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의 손을 잡고 넓디 넓은 백사장을 걸으며 호연지기를 길러주어도 좋다. 도란도란 얘기하며 걷다 보면 발길에 채이는 생물 조개도 잡을 수 있다. 본격적인 조개잡이를 위해서는 ‘호미’를 준비하고 할매 바위 뒷 편 갯벌로 달려가면 된다. 아마 부지런한 여러 가족들이 호미질을 하고 있을 테다.

하지만 이 곳에서의 조개잡이 갯벌 체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민박집 주인에게 ‘물때’ (물이 들고 나는 시간)를 물어보는 것이 필 수 이다. 조개를 캐낸 아이의 함박웃음은 오랫동안 부모의 가슴에 남을 것이다.



롯데오션캐슬 노천탕에서 마냥 신난 아이들

## 몸도 닦고 마음도 닦고

꽃지에서의 숙박은 해변 뒷 편의 펜션촌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 소개된바 있는 롯데오션캐슬이 있다. 즐겁게 갯벌 체험을 끝내고 심신이 피로하다면 롯데오션캐슬의 스파에 몸을 담구어도 좋다. 특히 노천탕에는 각종 수압마사지를 비롯해서 아이들용 풀장까지 갖추고 있어 좋다. 노천탕은 꽃지 해변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스파에 누워서 일렁이는 서해바다의 파도를 감상할 수 있다. 연인과 혹은 가족과 나란히 누워 한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일체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시원하게 스파에서 몸을 풀었다면, 다음은 '정신욕(浴)'이다.

꽃지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곳이 한 곳 있다면 바로 자연휴양림이다. 꽃지해수욕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자연휴양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면도에서만 자생하는 안면송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정원과도 같이 조성된 넓은 휴양림을 걷다 보면 어느새 정신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다. 이곳 휴양림 내에도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이 있고, 전통정원, 전망대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참고로 휴양림 내의 숙박시설은 인기가 많아서 사전예약은 필수이다. 사전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 투명에 가까운 블루 동해의 화진포해수욕장

동해는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이 연이어 자리하고 있어서 어디 한곳을 딱히 점 찍기 어렵다.

어디를 가나 질푸른 바다의 웅장함에 남성다운 기개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색다른 즐

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 화진포해수욕장을 권한다. 과거 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최북단 해수욕장중 가장 규모가 크다.

수심이 1~1.5m의 깊이로 아이들을 동반해도 위험하지 않고, 백사장은 모래찜질하기에 적합하다. 굳이 많은 해수욕장중 화진포를 권하는 것은 이곳만의 이색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 땅에 북한 김일성 별장이 있다고 한다면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화진포 해안 언덕위로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분명 그곳에서 김일성 별장을 만난다. 별장 입구 계단에는 과거 김일성이 앉았던 자리라는 표시가 어린시절 김일성 사진과 함께 붙어 있다. 김일성 별장에는 약간의 전시품과 함께 6.25전쟁 기록이 담겨있다.

### 호수와 바다의 절묘한 조화

화진포는 말 그대로 호수라는 뜻이다. 바다와 호수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것 또한 이곳만의 매력이다.

꽃지 갯벌에서 조개잡이하는 가족모습



둘레가 약 16km에 달하는 화진포 석호 가운데 위치한 섬 중턱에는 고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있다. 한 장소에서 과거 남과 북 두 정상의 별장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즐거움이고, 각각의 별장이 위치한 주변 환경을 통해 두 사람의 성품과 기개도 엿볼 수 있다. 아이들을 동반했다면 화진포 이승만 별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화진포해양박물관'도 둘러보길 권한다. 과거 패총박물관으로 출발했던 이곳은 그 규모와 전시내용을 확대해서 해양박물관으로 재 단장한 것으로, 각종 해양 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바다와 호수의 풍경에 대한 감상이 끝났다면 이제 차로 동해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달려보라. 잦은 산불로 민둥산이 된 강원도의 야산 풍경이 애처롭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 이어지는 푸른 동해의 절경엔 감탄이 절로 난다. 화진포에서 출발해서 30~40분만 달리면 통일전망대에 이른다. 반 세기 동안 인공의 조형 없이 간직되어온 천혜의 자연풍경엔 눈이 시리다.



화진포 김일성별장은 이미 많은 관광객들의 인기촬영장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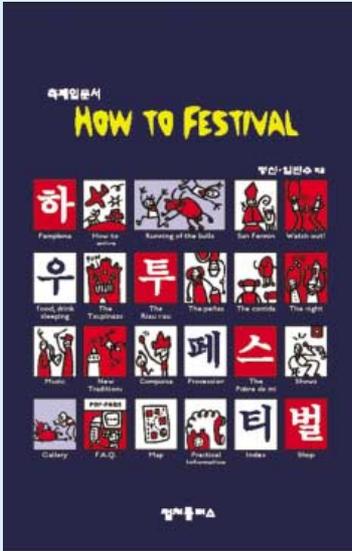
이제는 그 길이 열렸지만 반 세기 동안 망원경만으로 바라보아 왔던 북녘 땅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노라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새삼 솟구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엔 동해의 인심만큼 푸짐한 마른 오징어 몇 축을 사와도 좋다. 넉넉한 인심을 나누다 보면 새삼 다시 떠나고픈 마음이 일 것이다.

글 \_ 김효용 | 여행작가

화진포해수욕장에 주인을 따라온 애견 2마리가 유유자적 수영삼매경에 빠져있다.



# 축제입문서 ‘HOW TO FESTIVAL’ 지역 축제 만드는 노하우 담아



‘축제지기’라는 제2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정신 축제경영소 이사가 축제 입문자들을 위한 ‘How to Festival’을 펴냈다.

### 축제의 소재가 바로 축제의 이름이 된다

대부분의 축제는 축제의 소재가 바로 축제의 이름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축제의 매력을 상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원주 세계평화광파르는 세계 각국의 군악대가 펼치는 퍼포먼스와 연주가 꽤 인기있는 볼거리이다. 사람들은 부산 자갈치 축제라고 하면, 싱싱한 횡감을 떠올리며 군침을 삼킬 것이다. 이처럼 어떤 축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연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것이다.

###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은 축제성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것은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군사정권시대, 서구문화의 우월적 인식에 의해 단절되었던 우리의 축제성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종합축제에 의해 박제화되었던 우리의 축제를 축제답게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무수히 생겨난 새로운 축제가 관광객 수용태세 증진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세계적인 축제는 축제의 이미지가 분명하다.

세계의 유명축제들은 보통 12일에서 25일 이상의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뿐인 분명하고 매력적인 대표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티벌은 맥주축제이고 스페인의 산페르민 페스티벌은 소달리기 축제이다. 이렇듯 축제의 이미지가 분명하다.

저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축제 담당자 교육 및 세미나에서 강의했던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 연구’와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 축제를 모니터링하며 느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문자들이 축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축제의 이해, 새로운 축제 만들기, Case Study, 기획 실제 등 4개의 부문으로 쓰여져 파트별로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자 정 신

[www.fmi.re.kr](http://www.fmi.re.kr)

**남산의 어제와 오늘** | 용산문화원 발행



서울의 산과 남산, 조선시대의 남산, 근대 서울의 변화와 남산, 오늘의 남산과 남산공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장충단공원과 한옥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의 역사와 생활을 토대로 변화과정을 수록한 역사적 가치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용산향토사료편람이다.

**청해음사시집** | 완도문화원 발행



문장으로 인용된 1930년대 청해진 고도의 자연환경을 알리고자 번역본으로 발간한 청해음사시집(淸海吟社詩集)은 당시 완도군수 이원창이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입에서 한마디를 내어 뱉으면 구슬이 되고 제목을 정하면 옥처럼 되니 이것을 일컬어 명주라 한다' 고 했을 정도로 향교와 대학이 전무한 상태에서 각 면단위 별로 지성 있는 군민들의 작품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그 때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집으로 평가된다.

**한성 백제시대 산성** | 송파문화원 발행



한국 고대 산성 연구의 일환으로 포천 반월산성과 고모리산성, 이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 안성 망이산성과 죽주산성, 평택 자미산성 등을 중심으로 '한성 백제시대 산성'을 토대로 각 산성마다 개관과 함께 조사 성과 및 출토유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속초의 근·현대사** | 속초문화원 발행



시대 구분에 따른 속초의 연혁과 형성 과정, 개항 이후와 일제시대를 거쳐 한 국전쟁과 피난민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환동해권의 중심지로써의 속초시 발전 과정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화성의 효충열** | 화성문화원 발행



선조들의 효와 열이 담겨 있는 충효예 향의 얼을 되살려 화성시에 산재해 있는 효 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화성의 효충열'을 발간한 자료집. 첫머리에서 위기에 처한 부모를 구하는 것은 자식으로써 당연한 도리이나 그 정도에 따라 도리를 실천한 사람을 효자, 효녀, 효부라고 한다면서 관내의 효자비각, 효자문, 효자각, 충열각, 열녀 정려문에 대한 개요를 비롯해서 용주사와 부모은중경으로 정조대왕의 효심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고장 역사 문화의 전통** | 김제문화원 발행



김제시의 연혁과 인구, 취락, 선사시대의 김제,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하에서 김제의 변천과정 및 지정 문화재와 비 지정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를 분석해 놓고 있다.

**밀양명승제영** | 밀양문화원 발행



밀양 각처의 명승지에 선현들이 남긴 시문을 수집한 밀양명승제영(密陽名勝題詠)은 여섯 개의 밀양형승을 비롯해서 모두 59개의 시문을 한글로 정리해서 발간했다.

**광주의 다리** | 전국문화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발행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와 근대의 교량을 시대 구분으로 그 특징을 살피고 광주광역시의 각 구별 다리의 개요와 현황을 조사해 놓았다.

**석봉실기** | 가평문화원 발행



석봉 한호 선생의 일대기를 엮은 석봉실기(石峯實記)에서 가평 보납산(寶納山)은 석봉 선생이 군수로 재임할 때 민란 평정을 기원하는 제사를 모시고 그 제문을 이 산에 묻었기 때문에 보납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생의 연보와 생애는 물론, 주요 서첩 및 기록문과 함께 선생의 필적목록까지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신수도 동제** | 사천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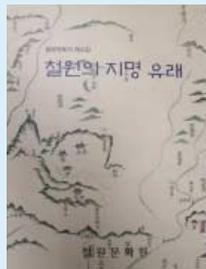
사천시에서 남쪽으로 약 3Km 거리에 있는 조그만 한 섬 신수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이 책에서 동제를 지낼 때 마을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 무당이 행하는 곳의 내용과 진행 방법 및 동제를 마친 다음 마을 사람들의 놀이에 이르기까지 신수도 동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수록하고 있다.

**여강 한구비 산이 그림같으니** | 여주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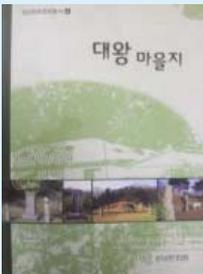
여주를 거쳐 간 옛 선조들이 여주팔경을 보며 느끼고 즐겼던 한시(漢詩) 구절을 알기 쉽게 한글로 바꾸어 발간하였다. 이 책의 제목인 '여강 한구비 산이 그림같으니'는 목은 이색 선생의 시귀중에서 따 온 것이라고 한다.

**철원의 지명 유래** | 철원문화원 발행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철원지방의 지명 변천과정을 담은 이 책에서 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에 걸쳐 각 마을별로 산과 골짜기, 고개, 바위, 나루, 들, 다리 등을 실었다. 또 완충 이북지역 등 기타 지역과 주요 지명에 이어 부록에서는 행정구역의 변천과 이들 지명에 얽힌 전설도 소개하고 있다.

**대왕 마을지** | 성남문화원 발행



신도시의 개발로 향토문화가 인멸됨에 따라 이를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대왕마을이 전통사회에서 현재에 이르는 삶의 공간으로써의 특성을 부각하는 등 자연·인문·환경 등을 대왕마을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각 사례별로 엮어 놓았다.

**경주문화논총** | 경주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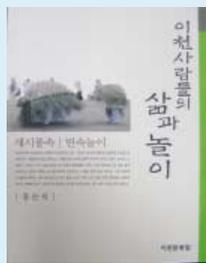
경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 등 '신라시대 역사 속에 나타난 형산강 수계' '해동고승전의 음악관련 기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콘텐츠 기획과 과제' '경주지역 소나무의 재선종 발생 예측과 방제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분석 자료집이다.

**청송지명유래총람** | 청송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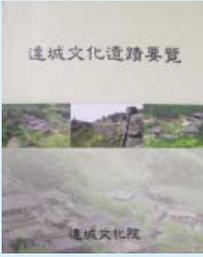
청송군 관내의 청송읍,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파천면, 진보면 등 1읍 7면의 각 마을별 지명의 유래를 담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와 읍·면 사무소의 전경 및 각 읍·면의 지도를 칼라사진으로 실고 있다.

**이천사람들의 삶과 놀이** | 이천문화원 발행



24절기마다 설레면서 맞이했던 세시풍속이 이제는 추석과 정월 명절만 남아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월·대보름, 춘절, 하절, 추절, 동절로 나누어 이천사람들의 세시풍속을 관찰하고, 아이들과 어른놀이, 대동놀이, 놀이패놀이 등 이천사람들의 민속놀이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소개해 놓고 있다.

**달성문화유적요람** | 달성문화원 발행



국가지정문화재와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무형문화재)를 비롯해서 전통사찰, 유적·유물, 명승경관에 이르기까지 칼라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울진·평해)사료** | 울진문화원 발행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 있는 울진·평해지역 관련 사항을 발췌 정리하여 이를 향토사 자료로 삼고자 그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편제해 놓고 있다.

**곡성방목** | 곡성문화원 발행



조선왕조 오백년동안 실시되었던 '문과' '잡과'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중에서 곡성과 관련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곡성방목' (谷城榜目)은 세종조부터 시행하여 고종황제에 이르기까지 총 61명을 배출한 곡성현에서는 각 합격자들의 시험년도와 합격등위, 부친 성명, 부친의 품계와 부친의 관직 등을 기재했다. 또 시험장소와 당시 시험관의 이름 및 관직 등을 기술해 놓고 있다.

**영월지역의 누정과 충효각 조사** | 영월문화원 발행



건물의 사방을 트고 마루를 높여 지은 집을 가리켜 누(樓)라고 한다면 정자는 한 두 사람이 자연을 벗삼아 시를 읊고 음악을 즐기는 공간이다. 누각과 정자의 개요와 충신각, 신도비각, 효자각, 효자비, 효부각, 열녀각, 열녀비, 소멸된 정려각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당진의 옛지도** | 당진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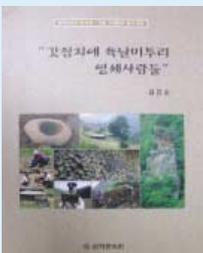
군현도(郡縣圖)와 도별도(道別圖), 전국도(全國圖)로 나눈 91개의 도판목록(圖版目錄)과 도판해설 및 당진 고지도의 역사적 이해와 내용분석을 자료화하였으며 한국지도관련 논문 및 도서목록을 실고 있다.

**영암문화원50년사** | 영암문화원 발행



영암군의 상징인 군기(郡旗), 마스코트, 군화(郡花), 군조(郡鳥), 군민현장, 군민의 노래 등 영암군의 연혁과 문화원의 연혁 및 역사, 특수사업실적, 영암의 문화재, 문화원 관련 각종 법규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갯집치에 육날미투리 영세사람들”** | 삼척문화원 발행



삼척민속지인 하장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갯집치에 육날미투리 영세사람들”은 험준한 산촌마을인 하장의 관혼상제, 세시풍속, 민간신앙, 민속놀이, 설화는 물론, 의식주 등 민속문화를 알뜰하게 소개하고 있다. 옛 날에는 배추보다 갯이 흔해서 갯집치를 많이 먹었다는 이 곳 사람들은 향아리 대신 아름드리 피나무로 만든 갯집치통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도구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를 짜고 삼 껍질을 벗겨 만든 육날미투리도 이 지역의 특산품이다.

#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May · June 2005 Vol.176

##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 “나의 아내를 차마 잊을 수 없습니다”(下)

어느날 임금은 그 정승을 불러 물었다. “신은 어찌하여 홀아비로 지냈는고?” “저는 이미 장가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더욱 이상히 여겨 물었다. “아무리 장가를 갔더라도 부인이 없으니 새로 장가를 들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러자 정승은 한 숨을 돌리더니 가슴에 품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제 본부인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글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부인이 무엇을 먹다가 슬쩍 허리 밑으로 숨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몹시 고프 터라 ‘부인은 지금 혼자서 무엇 먹고 있었소. 나도 좀 줄 수 없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얼른 내어 주지 않아 빼앗듯 허리 밑을 살펴보니 그것은 황토흙이었습니다.(지난호 이야기)

부인은 옷을 만들어 품삯을 받고 쌀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허기를 이기지 못해 황토흙으로 입가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부인은 혼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제주목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가려고 배를 타 한바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출렁이더니 금세라도 배가 뒤집어질것처럼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때 저는 사공한테 ‘왜 바람 한 줄 없는데 바다가 이처럼 출렁이느냐?’ 고 외쳤습니다. 이에 사공은 ‘배를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 배에 탄 것 같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뒷 저고리를 벗어 바닷물에 띄어보면 누가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뒷저고리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이는 배에 타지 못할 사람입니다’ 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배에 탄 사람 모두 저고리를 훌훌 벗어 물위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의 저고리는 모두가 바다 물위에 잘 뜨는데 제 부인의 저고리만 물속으로 사르르 가라앉는 게 아닙니까. 저는 무척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부인의 얼굴도 납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부인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렁이는 배위로 걸어가며 이사람 저사람 부여잡고 ‘조금만 있으면 폭풍이 그칠지 모르니 기다리라’ 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만치 떨어져 있던 부인이 나를 한번 젖은 눈으로 쳐다 보더니 아무말 없이 치마로 얼굴을 감싼 채 그만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고 마는게 아닙니까. 나는 순간 머리속이 텅 비는 듯 했습니다.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부인이 떨어진 바다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부인의 모습은 온데 간데 보이지 않고 성난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무사히 제주도로 가서 선정을 베풀다가 다시 임금님을 모실 수 있는 정승이 되어 오늘날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로지 제 부인의 덕분인데 그러한 부인을 두고 어찌 다시 부인을 정하겠습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은 감탄하면서 “결국 정조라는 것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는 것이구나!”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mckang999@hanmail.net